

치솟는 유가·원자재값에 오미크론...산업계 '시름'

국제유가가 7년만에 최고...광물값도 들쭉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에 물류비 등 상승 항공·화학·해운업계 등 '검약재' 직격탄 정유사들 원유 재고 관련 이익 기대

치솟는 유가와 원자재값에 오미크론까지 산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

국제유가는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주요 광물자원 가격도 들쭉이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과 물류비용 상승,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속화와 긴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악재가 겹겹이 쌓이면서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다. 3월 업계에 따르면 전월(현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WTI 가격은 전월보다 0.06(0.07%) 상승한 배럴당 88.2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4년 10월 이후 약 7년 만에 최고치다.

주요 광물 가격도 팽창하고 있다. 산업용상 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철도요금 기준(CFR) 철광석 가격은 지난해 28일 톤당 147.90달러를 나타냈다. 연초 대비 15.34% 상승한 가격이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해 11월 87.20달러까지 떨어진 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제철용 원료탄 가격도 지난해 31일 톤당 442.30달러로 연초보다 20% 뛰었다.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는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국제유가는 석유제품 수요 증가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배럴당 120달러 정도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상 운임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글로벌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해 28일 기준으로 5010.4를 기록했다.

항공업계는 당장 고유가도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고정부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대한항공의 작년 연료비는 1조3800억원으로 2020년

1조2474억원보다 44.3% 늘었다. 대한항공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1달러 변동되면 약 3000만 달러의 손익이 발생한다. 항공사들은 저유가일 때 항공유를 미리 구매하는 '항공유 헤지'와 유가 선도계약을 통해 유가 변동의 위험성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석유화학 업계도 울상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원유에서 추출되는 나프타를 기초 원료로 사용하는데 유가 상승으로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올랐지만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관련 설비 가동률을 낮추면서 석유화학 제품 수요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해운업계도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할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의 연료 사용액은 2020년 기준 5000억원이었지만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3분기 기준 비용이 6800억원까지 치솟았다.

전자업계는 유가 상승에 따라 물류비가 늘어난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LG전자 생활가전 매출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유통을 제쳤지만 물류비와 원자재값 상승 탓에 영업이익에서는 월패에 머물렀다.

자동차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더해 유가 급등이 장기화할 경우 자동차 가격 상승 압박이 강해지면서 생산·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최근 철광석 및 석탄 가격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철강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제품 가격에 잘 반영되는 편이지만, 원가 상승이 제품가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1~2분기 정도 걸려 이 기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정유사들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원유 비축분의 가치가 오르면서 재고 관련 이익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입춘대길 건양다경' 입춘을 하루 앞둔 3일 대구 중구 대구교에서 유림이 밝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기원한다는 뜻의 '입춘대길 건양다경' 입춘첩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김현태기자

경남도, 특화 국가산단 3곳 분양·조성 박차

경남도는 특화산업단지 국가산단 3곳의 분양과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밀양 나노융합산단, 진주·사천 항공산단 분양과 거제 해양플랜트산단 승인 추진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은 밀양시 북북면 일대 166만㎡에 3728억원을 투입해 나노융합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나노관련 기술개발 연구를 위한 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2017년 7월 계획승인을 받아 2018년 10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산단은 합양~울산 고속도로 부분 개통 등으로 인근 대도시인 부산·울산·대구·창원과

밀양 나노융합·진주·사천 항공산단 각각 현재 40%·45% 공정률 보여 거제 해양플랜트는 국토부와 협의중

1시간 이내 생활권을 갖춰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나노전자·소재모듈 공정에 따른 조립생산, 장비 운영, 공정 유지, 보수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 나노마이스터고도 인근에 있다. 2020년 삼양식품을 유치하는 등 CJ대한통운, 보광 등의 중·대형 기업체를 잇달아 유치했다.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0월 산업시설용지 82만2065㎡ 중 9만1791㎡를 분양 공고했고 올해부터 남은 용지도 본격 분양에 들어감에 따라 기업체 유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 항공국가산단은 항공산업 집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7년 5월 계획을 승인하고 LH가 분양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특화 산업단지다. 진주시 정촌면 83만㎡, 사천시 용현면 82만㎡에 4129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LH가 진주·사천지구 조성원가 확정에 이어 이달에 이주자 택지를, 5월에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고 10월에 산업시설용지를 공

급할 계획이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거제시 사등면 일대 육지부 157만㎡, 해면 301만㎡를 합쳐 총 458만㎡에 1조7340억원을 투입해 해양플랜트산업과 이와 연관된 제조산업 용지 공급을 위해 계획된 단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승인 시점이 2018년 1월 조선소 대기금 참여를 조건으로 승인이 보류된 상태다.

도와 거제시는 2018년부터 대형 조선사를 상대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참여 문제를 협의했으나 조선업 불황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 참여가 지연되면서 국토부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

창원/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경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행정력 집중한다

올해 국·도비 2626억원 투입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추진

경북도는 올해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도비 2626억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어촌 인력 부족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주거 환경과 유통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어촌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 양식 분

야 신성장 모델 육성을 위해 국책사업에 선정된 '포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포항 남구 장기면에 400억원을 들여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연구·가공시설, 배후단지 기반조성 등을 한다. 이 사업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연어를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수출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유통·가공 선진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제품 고

화와 공동 브랜드 개발에 나선다. 어촌뉴딜 300 정책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귀어 학교를 운영해 신규 인력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이밖에 어촌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품해면 및 게스트하우스 조성, 어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유류 어항을 활용한 휴양형 관광 마리나 개발,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공동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김성화 도 해양수산국장은 "생산과 유통, 소비단계까지 혁신해 사람이 모이는 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전매안평 소오갈선생 안백룡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욕심도 벗어놓고 미련도 벗어 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 가라 하네 (고려말 4용선사)

보건관리위원회 심의일제 제 201104-중-113259

건강관리의 시작

건강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의원

문의 : 032-890-8700

지금_나_여기 # 문경_여행중

www.gbmg.go.kr/tour

문경악물반우
약들대기

문경사과

문경수미자

문경생태마루공원

문경탄산관광노래일

문경시
Mungyeong City

단신브리핑

동네 병·의원서 코로나 '윈스톱' 진료

전남도는 3일부터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발열 등 호흡기 증상자가 도내 16개 시군 총 45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진에게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시군별로 순천 10개소, 목포 9개소, 여수 6개소, 무안 5개소, 나주·함평·산안 각 2개소, 광양·고흥·보성·화순·장흥·해남·영광·안동·진도 각 1개소다.

이에 따라 해당 동네 병·의원을 통해 진찰부터 진단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재활치료까지 가능하다. 발열 등 호흡기 증상자와 의사진단 검사 코로나 의심 증상자는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동네 병·의원은 발열 등 기본적인 환자 증상 진찰과 함께 기저질환력 등을 확인한다.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될 경우 병원에서 바로 PCR 검사를 시행하거나, 병·의원에서 PCR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받으려 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결과, 모두 양성이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으며 재활치료까지 이뤄진다.

남익/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사랑의 온도 '120도'...178억 5800만원 모금

이웃을 돕기 위한 충남도민들의 온정이 올해도 넘쳐 흘렀다.

도는 연말연시 기부문화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이 120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도와 충남모금회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2022 나눔캠페인'의 총 모금액은 178억 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민 1인당 모금액은 8427원으로 전국 최고 기록이며 모금 총액은 서울, 경기 다음으로 전국 3위이다. 도는 희망2022나눔캠페인 폐막식을 개최하고 도민들의 온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승조 지사는 "경기불황과 가계경제 위축 등 어려운 상황 속에도 늘려온 성과를 보내주신 도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주말농장·정원형 텃밭 9일부터 분양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9일부터 주말농장 및 정원형 텃밭을 분양한다고 3일 밝혔다.

주말농장은 연가·연서·장군·금남·연동면 등 관내 5개면 내 11개 농장에서 전체 965구획을 제공하며 구획당 16.5㎡(5평)~19.8㎡(6평)로 분양비는 3.3㎡당 1만~2만원이다.

정원형 텃밭은 7개 농장에서 전체 38구획을 제공하며 구획당 66㎡(20평)다. 텃밭·관수시설 등 편의 시설이 설치돼 가족단위 텃밭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분양비는 30만~60만원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주말농장 정보를 알렸던 공공체 시민에게는 농장선택의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농장주는 분양텃밭 대상으로 토양검정 및 증급속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텃밭을 제공한다.

분양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www.sejong.go.kr/adtc.do) 열린마당에 공개되는 농장정보를 활용해 농장주에게 직접 신청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담당(☎ 044-301-2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u@jeonmae.co.kr

매월 '지사님 할 말 있어요' 오픈 채팅방 운영...과감한 제언 반영

경북도는 밀레니얼 세대 직원들이 창의성과 주도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열린 조직문화로 대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갑질, 직장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전면 개선해 공직내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 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우선 매월 '지사님 할 말 있어요' 오픈 채팅방을 운영해 젊은 직원들의 과감한 제언과 아이디어를 청취해 도정에 적극 반영한다. 또 부서장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 월1회 월요일 연가사용과 퇴직금 이상 월 1주 이상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젊은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연가 및 유연근무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료주의 관행의 간부공무원 식사모시기와 출장, 식사 등을 위한 하위직 공무원의 차량 대기 문화도 바뀌 나가기로 했다.

이울러 직장 내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생적인 조직문화 정착시스템 구축을 위해 변호사 자격 등을 가진 인권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인권보호관을 채용하

고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구제를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규 공직자들의 빠른 조직 적응을 위한 멘토마니포 제도도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한 '역량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유연한 근무환경과 소통공감의 조직문화가 돼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며 "직원이 행복해야 도민도 행복하다. 월요일에도 출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신용대기자 shnyd@jeonmae.co.kr



경기사랑의열매 나눔 온도 115도 달성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도청오거리 사랑의열매 앞에서 열린 '희망 2022 나눔캠페인 폐막식'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이 감사 현수막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진행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목표 금액인 276억원보다 41억원을 초과 달성해 115도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경기도, 관광지 13곳 무장에 환경조성 지원

보행로 개선·관광약자 쉼터 설치 장애인 여행지일 차량 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여행코스 운영

경기도가 포천 산정호수 등 도내 관광지 13곳을 대상으로 보행로 개선, 관광약자 쉼터 설치 등 '무장애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무장애 관광 환경이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말한다.

관광지 13곳은 용인한택사박물관, 용인농도원목장, 용인한터농원, 용인등잔박물관, 파주마장호수, 광명동굴, 양주장흥관광지, 이천성호호수연꽃단지, 포천산정호수, 포천아

트밸리, 양평용문산관광지, 양평맑은샘캠프, 연천재인폭포 등이다. 이들 관광지에는 도비 총 4억9600만원이 투입된다.

주요 관광지 사업 계획을 보면 용인 한택사박물관은 보행로를 설치해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성을 높여준다. 양평 맑은샘캠프는 휠체어 승강기를 정비해 보행약자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 광명동굴은 관광약자 쉼터를 조성하고 연천 재인폭포는 비포장 진입로 및 경사로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관광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무장애 관광지 홍보영상 제작,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대상자 초청 현장 설명) 추진, 관광약자를 응대하는 관광업계 및 관광인내소 봉사자 대상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경기여행누림 사업도 병행한다.

경기여행누림 사업이란 도내 관광지를 방문하는 장애인에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2대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올해는 대형버스 1대와 이동 및 접근성이 좋은 준중형 버스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기여행누림 버스 이용 시 시각·청각 장애인에 대한 해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도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 시범 운영 및 수요자 맞춤형 여행코스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최용준 경기도 관광과장은 "관광약자가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지속적 정보 제공 등으로 무장애관광 도시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성남시 '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9일 공청회

경기 성남시는 오는 9일 '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시는 141.82㎡에 이르는 공원·녹지의 지역적 특성과 관리·이용·보존 장기 계획, 도시 녹지 확충 방안 등을 설명하고 관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도시 개발, 기후변화, 시민참여, 환경보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원과 녹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시 녹지 확충 방안 등을 설명하고 관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다.

이일영기자 leey@jeonmae.co.kr

상이다.

이를 위해 장기 미진행 도시공원을 정비하고 주제공원 유형의 다양화와 함께 신규 공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촌·복정·복정2·금도·남성 공공주택 등 각종 개발사업 지역의 녹지 확충 사업 계획도 마련한다. 가로수,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도로 등에 대해서는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채택에 대해 의견을 내달라는 '세계적 도시로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성남도시 상'으로 선정됐다.

기본 방향은 도시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의 통합, 도시의 질 향상, 생활과 녹지가 어우러진 균형적인 녹지공간 조성, 공원녹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자연과 공생하는 매력적인 도시형상 등 4가지다. 2035년 목표연도까지 계획인구 108만2000명 기준 1인당 11.6㎡의 도시공원을 확보한다는 구

내려온 공청회에 참석하기 오는 2월 16일까지 성남시청 5층 공청자료실, 팩스(031-729-4433), 이메일(hs2022@seongnam.kr)을 보내면 된다.

이일영기자 leey@jeonmae.co.kr

수원시, 자연·사람 어울리는 '녹색도시' 만든다

2026년까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확충 가로수 건강 회복 등 3개 분야 10개 사업

경기 수원시가 오는 2026년까지 '가로수 중앙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시민참여형 가로수 전수조사·DB(데이터베이스) 구축, 가로수 건강성 회복, 가로수 확충 등 3개 분야, 10개 단위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주진 방향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확한 DB 구축" "기존 가로수의 건강성을 회복해 수관 면적 증진" "가로수 확충 병행 추진" 등이다.

가로수 전수조사·DB 구축 사업은 시내 모든 가로수를 조사한 후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수목 전문가·시민과 함께 가로수의 생육 상태·가로 환경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가로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로수 건강성 회복 사업으로는 '생육환경 개선', '가로수 보호관 정비', '가지치기 패러다임 전환', '도로 다이어트' 등을 추진한다. 가로수 확충 사업으로는 '따뜻한 구간 확대', '교통성 등 녹색 쉼터·가로숲길 조성' 나무가 죽거나 상한면 보충해서 심는 '가로수 메워주기', '적지적수 사업' 등을 진행한다.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양아영씨[560519-1XXXXX, 2021년 10월 20일 사망,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1길 7, 203호]의 법정상속인 한계분은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하고자 위장부지방법원 2021년 3월 12일자로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2022년 1월 26일자로 한정승인신청을 받았으므로 양 아영씨에 대하여 채권 또는 유증을 받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 및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실을 민법 제1032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한정승인인 : 한계분
 채권신고장소 : 남양주시 평내로 46, 1102동 1603호 (평내동, 평내마을 주공아파트)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양상익씨[751106-1XXXXX, 2021년 2월 12일 사망, 시흥시 장현순환로 58, 1202동 2204호 (장현동, 장현호반4차)]의 법정상속인 한영숙은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한정승인 하고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1년 12월 31일자로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여 2022년 1월 17일자로 특별한정승인신청을 받았으므로 양 상익씨에 대하여 채권 또는 유증을 받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 및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실을 민법 제1032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특별한정승인인 : 한영숙
 채권신고장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1길 2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양강영씨[460922-1XXXXX, 2021년 6월 26일 사망, 파주시 송화로 13, 102동 1203호 (아동동, 판소리마을1차)]의 법정상속인 1. 여정애 2. 김향은 3. 김명은 4. 김은미는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하고자 위장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년 12월 28일자로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2022년 1월 28일자로 한정승인신청을 받았으므로 양 강영씨에 대하여 채권 또는 유증을 받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 및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실을 민법 제1032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한정승인인 : 1. 여정애 2. 김향은 3. 김명은 4. 김은미
 청구인 5. 김은미는 미성년자이므로 미성년후견인 김명은
 채권신고장소 : 파주시 송화로 13, 102동 203호 (아동동, 판소리마을아파트)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로컬 콘텐츠의 힘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치는 어떻게 창조되는가? **《골목길 자본론》, 《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에 이은 모종린의 '로컬 비즈니스 3부작' 완결편!

"사람들 공간에 머물게 만드는 힘은 물건이 아니라 그곳에서 공유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이다. 중요한 이를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다"

골목길 자본론

더비비고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한 음식으로 소중한 사람을 챙길 수 있도록 매일 먹는 한식이 더 건강해집니다

정성으로 만듭니다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식 더비비고

李 “의료·공공기관 수어통역사 배치…전문 교육과정 마련”

수어의 날 6번째 ‘소확행’ 발표…“청각장애인 어려움 해소” 김혜경 논란 사과 “감사기관서 진상규명…문제시 책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일 ‘한국 수어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전문 수어 통역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어는 국가가 법으로 정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 언어”라며 이러한 내용의 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의료·법률 등 전문 분야의 수어 통역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수어 통역센터 배치를 확대해 긴급 의료 상황이나 법적 분쟁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료기관과 경찰서 등 관공서에 전문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불편함 없이 기관을 이용하고 도움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는 ‘수어 사용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수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사 표현이 안 돼 아파도,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40만 청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아내 김혜경 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을 두고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삼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사로써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지 않으나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면서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는 부적절한 경기도 법안카드 사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면서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안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을 계기로 저와 가족, 주변까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런 입장은 배우자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이 다른 의혹으로 확산되자 경기도지사 시절 발생한 일에 대한 포괄적 사과의 뜻을

밝힘으로써 돌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배 씨는 전날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면서 사과했다.

배 씨의 입장문이 나온 직후 별도로 메시지를 내고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상식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도 감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진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지사 공판 자체가 공적·사적 영역을 가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약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혜경 여사가 약을 안 먹은 것은 확인했다”면서 “A씨는 남자인데 어떻게 그런 약을 처방을 받았느냐.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동네병원 코로나 검사, 첫날부터 혼란

코로나19 진료체계 전환 첫날인 3일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참여가 시작됐지만 어느 병원으로 가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제때 공지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졌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네 병·의원 의뢰의 코로나19 검사·치료 참여는 시급한 문제가 됐지만, 정부 대응은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진료체계 전환에 맞춰 코로나19 검사·치료에 참여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을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알림’을 거쳐 ‘심평정보통’에 들어가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81곳의 명단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전날까지 3일 운영을 시작하는

가동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 정책관 “오미크론이 무세종화되면서 연휴 후 확진자가 급증, 선별진료소 검사 여력이 부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계속 업데이트 할 것” 동네병원 참여, 적용기간 필요할 듯

보건의료 대책회의 의료기관으로 등록이 된 병·의원은 해당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주치의로서 재택치료 관리도 담당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검사만 하는 기관도 있다. 이 경우 이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보건소에서 적절한 재택치료 관리기관을 지정해준다.

현재 공개된 명단으로는 각 참여 병원 병·의원을

진료체계 전환 당일 정보 다 돼서야 참여 병원 명단 공지 예상보다 적은 200여곳 참여…재택치료 관리여부 공표 인돼 확진자·재택치료자는 폭증…대응역량 이미 한계치 근접

343곳이라고 밝혔지만, 점차 이날 오전부터 새 검사·진단 체계에 참여하는 곳은 예상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정부는 “오후에 20개 정도 병·의원이 추가로 오늘부터 200여개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60세 이상 등 ‘우선 검사 대상자’가 아니면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 받게 돼 있다.

정부는 “오전에 20개 정도 병·의원이 추가로 오늘부터 200여개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60세 이상 등 ‘우선 검사 대상자’가 아니면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 받게 돼 있다.

● “실 연휴 때문에…” 명단 늦게 공개되고 참여 규모도 줄어

정부는 지난 28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2월 3일부터 전국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치료를 하는 새로운 진단검사체계 전환이 이뤄진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치료에 참여할 병원들의 신청을 받았다.

일선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의 지침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신청을 꺼린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잠자 연휴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맞았다.

이런 문제들은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실 연휴 직후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이 재택치료 관리까지 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후 재택치료 관리기관을 겸하는 병원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 명단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또 참여 병원 중에는 신속항원검사만 시행하는 곳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연계해 시행하는 곳도 있다. 어떤 병원이 PCR 검사까지 진행하는지 여부는 현재 명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은 각 병·의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지정해 해지할 수 있다. 또 검사와 치료를 같이 운영하다가 검사만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정 의료기관 명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료체계 전환 첫날부터 혼란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대응이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세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택치료자는 이날 기준 9만7천136명으로 전날(8만9천420명)보다 7천716명 늘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관리 의료기관은 461곳이며 최대 10만9천명의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관리 여력의 89.1%가 들어간 상황이다.

김영미기자 kym@jeonmae.co.kr



정부혁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1년 정부혁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전남 지자체 공무원 2132명 신규 채용…작년보다 159명 ↑

장애인 203명·저소득 52명 별도 전형…국가유공자·고졸자도 선발

전남도와 시군 지자체는 올해 지방공무원 2천132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도청 직접 채용이 192명, 시군 지자체 채용이 1천940명이다.

지난해 1천973명보다 159명(8%)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인원이다.

직렬별 모집인원은 행정직 843명, 시설직 272명, 사회복지 175명 등 29개 직렬에서 2천132명이다.

직급별 모집인원으로는 행정·수의 7급 94명, 간호·보건진료 8급 64명, 행정·농업·

시설 등 18개 직렬 9급 1천888명, 연구사 41명, 지도사 35명이다.

지난해보다 7급은 64명에서 94명으로 30명 늘었고, 8·9급은 1천830명에서 1천922명으로 132명 증가했다. 연구사와 지도사는 79명에서 78명으로 3명 줄었다.

올해도 사회 소수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203명·저소득 52명을 별도 전형으로 채용하고, 국가유공자(27명)와 고졸자(68명)도 선발한다.

신규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원

칙으로 하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연구직과 일부 기술직은 필수자격증 등 응시자격이 필요한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치른다.

모두 6차례에 걸쳐 공채·경채·직렬별 등을 구분 실시할 예정이며, 가장 큰 규모는 6월 18일 실시하는 제3회 공무원 임용시험으로 1천710명을 선발한다.

임용시험의 주요 변경 내용은 필기시험에서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직렬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했다.

연구사 응시자격 학력기준은 학사에서 석사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농촌지도사 농업직류 선발 방식을 지역구분에서 도 일괄 모집으로 변

경했다.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접수한다.

가주제 제한요건·시험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선발 예정 인원이 대폭 늘어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지역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직류별 선발 인원, 응시원서 접수 일정, 응시 자격, 시험 시기 등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 취업준비 응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약/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고품격 자연주의 안성마춤

안성마춤 브랜드는 안성인의 긍지이며 자랑입니다.

천혜일미 - 안성마춤 쌀

자연물냉면우 - 안성마춤 한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 안성마춤 배

백년의 전통으로 재배된 고품질 - 안성마춤 포도

동양의 자연유산 - 안성마춤 인삼

안성마춤 상표이야기 Brand Identification

안성의 옛 이미지를 실버 마법의 모양을 부각시켜 실용마크의 이미지를 잡았습니다. 황룡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그림자여늬를 사용, 입체감을 표현하였고 전통적인 색을 이용하여 Deep Tone으로 컬러, 무게감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는 안성시가 그 핵심을 보증하는 안성시공공브랜드로서 차별화된 안성시만의 브랜드입니다.

안성마춤 역사와 전통 유지를 만들던 중앙정신 협회 | 마해 청원함과 안성의 상징-황룡을 지기겠다는 약속 | 6대농산물 쌀, 한우, 배, 포도, 인삼

City of Masters 안성
안성맞춤도시 안성



설연휴 마지막날 조사, 李 40.4%·尹 38.5%·安 8.2%

李·尹 오차범위내 박빙

다자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이뤄진 조사 결과이지만 두 양강 후보의 박빙 접전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안갯속 판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쿠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0.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 내인 1.9%포인트다.

이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8.2%, 정의당 심상정 후보 3.3% 순이었다. 야권에 국가혁명당 허경명 후보 2.1%,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0.7%,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0.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서울(이재명 33.3%, 윤석열 42.6%)과 경기·인천(이재명 40.7%, 윤석열 37.1%) 등 수도권에서 접

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34.8%를, 윤 후보는 호남에서 18.1%의 지지율을 기록, 각각 함지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선 윤 후보 40.0%, 이 후보 28.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세대별로 이 후보는 30대, 40대, 50대에서 앞섰고, 윤 후보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앞섰다. 30대의 경우 이 후보 43.1%, 윤 후보 34.7%의 지지율을 보였고, 40대에서 이 후보 50.5%, 윤 후보 30.1%, 50대에서 이 후보 49.3%, 윤 후보 31.8%를 기록했다.

60대 이상에서는 윤 후보가 50.9%를 차지했고, 이 후보는 32.1%였다. 18~29세에서 윤 후보는 37.2%, 이 후보는 31.2%의 지지를 얻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 전화면접 16.2%, 무선 자동 응답 전화조사 83.8%, 무작위 임의전화걸기 추출)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문미기자 kym@jeonmae.co.kr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 5곳 확정

선거기간·사무일정 대선과 동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선거구 5곳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재보선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당선무효에 따라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구는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2곳이며, 중도 사퇴로 인해 보궐선거를 하는 지역구는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 대구 중·남구 등 3

곳이다.

이번 재보선은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므로 선거기간과 선거사무일정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후보자등록은 오는 13~14일 양일간 진행되며, 선거운동기간은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도 대선과 마찬가지로 오는 3월 4~5일 치러진다.

한편 올해 2~4월 실시 사유가 발생하는 지역구에서의 재보선은 6월 재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尹, 단일화보다 원팀... 洪 이어 劉 ‘손짓’

설 연휴 중 직접 접촉 시도했으나 불발 劉, 3040 영향력 커 취약점 보완 기대

‘심쿰약속’ 29번째... 尹시 특별구역 추진 “뉴시터·수변공원 등 편의시설 확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야권 단일화보다 당내 원팀을 이루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막판 선거 전략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의 선배부부 상임고문직 수락을 얻어낸 윤 후보로서는 경선 패배 이후로 잠정 모드를 유승민 전 의원의 공개 지지를 끌어내는 게 ‘마지막 게임’로 꼽힌다.

윤 후보는 설 연휴 중 유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배부부 관계자는 3일 “윤 후보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유 전 의원과 접촉을 시도해왔다”며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예초 구상대로 친분을 뺀 모든 세력을 규합하는 ‘반문 빅텐트’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일단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보다는 원팀 완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최악의 경우 3자 구도로 가더라도, 보수 지지층을 바다까지 끌어모으면 승산이 있다는 이른바 ‘자강론’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약한 중도층과 3040 세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윤 후보의 취약점을 보완해 줄 것이라는 게 윤 후보측 기대다.

특히 경제·안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유 전 의원이 정치 신인으로서 정책 역량을 입증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윤 후보와 당장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두 사람이 지난 경선 과정에서 대립에서 거침없이 충돌한 데 따른 감정의 앙금을 미처 해소하지 못한 것이 원팀의 장애물로 거론된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윤 후보는 물론 측근들의 연락에도 좀처럼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과 가까운 유익동 의원이 당 정책위의장이 선출된 것이나 오찬환 전 의원이 윤 후보 입장을 말하 마크하고 있는 것이 관계 개선의 불꽃을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는 관측도 나온다. 더 나아가 유 전 의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를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해 윤 후보와 러닝메이트 구도를 만드는 시나리오도 한동안 회자됐다. 그러나 결국 윤 후보의 적극적인 삼고초려 여부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고민을 마친 유 전 의원의 최종 결단에 달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 전 의원에게 국회 의원 배치 한번 더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정책 측면에서 역량을 부여하는 쪽이

더 의미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가정) 尹시·여가 특별구역 추진하고 여가 편의시설을 확충해 1000만 尹시인들의 니즈(요구)를 충족시켜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29번째 ‘석열씨의 심쿰약속’으로 “해안 및 내수면 등에 尹시와 여가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가칭 尹시·여가 특별구역의 지정을 추진하고, 유령 뉴시터와 수변공원 등 뉴시터들이 많이 찾는 곳에 화장실, 데크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점차 늘어나는 尹시 통재구역으로 뉴시를 즐길 장소가 줄어들고 있다는 尹시인들의 입장을 전했다.

이러 뉴시를 할 수 있는 특정 장소로 사람이 몰리면서 아중 자원 감소와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유령 뉴시터에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윤 후보는 尹시 통재구역의 지정 절차를 개선하고 뉴시를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장소종목으로 복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3월 9일은 대선 투표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월 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에서 인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대형 투표함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3월 4~5일에, 선거일 투표는 같은 날 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연승우/김민기

與, 尹 ‘사드 추가’ 맹공... “안보 포퓰리즘”

박완주 ‘평택·충남 배치... 국민차별’ 김민배 북취락 언급 尹에 입장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주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윤 후보를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윤석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무식해서 용감한 건가.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안보 심리를 자극해 표를 얻어보려는 윤 후보의 안보 포퓰리즘 행태가 충격 그 자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민이 배치 장소 선정에 반대하는 사드 정국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면서 “윤 후보는 이걸 다시 재현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전술해 배치,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발언을 하면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표만 되면 무슨 일이든 벌이는 이런 후보에게 우리 국민은 절대 안보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

대위원이 ‘수도권 주민이 불편하니 경기 평택, 충남 등에 배치 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황당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 선배위가 하듯도 거주 지역에 따른 국민차별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충남 천안일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충청을 찾아 충청의 아들이라고 외치던 윤 후보는 기적 발언을 한 데 대해 충청인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본인 집 앞에 (사드를) 배치하고 수도권 방어에 사력을 다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무능·무시·무지라는 3무(無) 후보에게 국민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윤 후보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냉전 시기와 작대적 공생관계의 부활을 주도하는 알관성 쌍쌍이”라고 거듭했다.

윤건영 의원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 경제와 평화를 불모로 한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정발 세상 물정(모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는 수십조 원 넘는 피해를 봤다”면서 “(중국) 눈치 불 이유가 전혀 없

지만 (사드 추가 배치로) 가만히 있는 중국을 건들 이유도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 반대·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민배씨의 ‘윤석열이는 형이 갖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는 북취락 발언을 토대로 윤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대장동 의혹을 엮으려는 시도도 계속됐다.

송영길 대표는 KBS라디오에서 “김민배가 윤석열로 특검을 이렇게까지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 실제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윤 후보는 무슨 검사 장례식장에서 잠깐 스친 사이이고 했지만 김민배 누나가 어떻게 자기(윤 후보) 아버지 연하동 집을 사주느냐”면서 “1000만 명의 서울 시민 중에 거기를 하릴 찾아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윤 후보는 패하지 말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김민배씨와 무슨 관계인지, 저축은행 사건 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랑백백하게 밝혀야 하는데 계속 회피하고 있다. 잘못된 게 없으면 왜 목록부담인 지 되묻고 싶고”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지방시대

전국매일신문 자매지 www.jeonmae.co.kr

Cover Story
맹정호 충남 서산시장

“더 크고 더 강한 서산으로 虎視牛行”

【서산부평】

※ 전국 유명서점 및 판매점 ※ 구입·구독 문의 1588-5762

여야, 대선관 혼전 속 김종인 향해 ‘러브콜’

대선관을 관망 중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해 여야가 다시 우호적인 손짓을 보내고 있다.

대선 민심의 최대 변수가이던 설 연휴를 지내면서도 한 쪽의 우위를 확실히 어려운 혼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 전 위원장의 지지가 중도 확장의 열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전 위원장과 갈등 끝에 결별한 기억을 가진 양당 내부의 저항감도 없지 않다 보니 적극적 재영입 시도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지 못할 바에야 반대편으로 결합하려는 듯 하도록 차관함으로써 대선관 외곽에 불잡아두려는 견제구의 성격도 짙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김 전 위원장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촉하며 화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가 김 전 위원장과 자연스럽게 경제 현안 등을 논하는 모습을 연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진영을 가리지 않는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함으로써 중도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후보도 연락할 생각이 있고, 김 전 위원장도 대화할 수 있다고 하니 교선을 가대하고

있다”며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의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한 의견을 들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나를 만났다고 하면 만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적극적이다. 송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박근혜 후보를 경제민주화 가지고 도왔지만 결국

李, 회동 추진... 李측 “원로의 경제위기 극복 의견 듣겠다”
尹, 새해 안부 전화... 이준석 “정권교체에 뜻 함께 하신다”

“평” 당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김 전 위원장의 경제철학을 윤석열 후보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후보는 이 후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연휴 중이던 지난 31일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김 전 위원장을 한 차례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나라를 위해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는 김 전 위원장과 접촉만을 넓히는 데 회의적 시선도

있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윤 후보도 계속 전 화하고 만나려 하는 사람에게 계속 구애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저쪽 저쪽에 편만 깔아주고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원회를 통해 김 전 위원장과 연결고리를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선대위 해체 과정에서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신경전이 노출된 채 결별한 모양새

였지만, 선거 레이스 막바지에 이를수록 김 전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당내에 적지 않다.

무엇보다 여러 선거전에서 ‘백전노장’인 김 전 위원장이 여전히 경외의 스페셜리스트 무시 못 할 위치에 있다는 점도 국민의힘으로선 그

의 손을 완전히 놓을 수 없는 지점이다. 김 전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이준석 대표는 더 적극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 전 위원장은 이번에는 특히 정권교체라는 것에 뜻을 함께하고 계신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김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철학도 많이 어긋나 있는 후보일 텐데 어떤 지면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청약홈서 청약

국토부, 분양제도 개편... '수분양자 권리보호·사업자 부담 완화'
청약신청금 7일내 환불 '대금보호'...과장광고 차단·전매제한 규정도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또 오피스텔 등의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 신청 뒤 7일 이내에 미달자에게 환불해야 하며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공영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에 따라 건축물 분양제도를 이같이 개편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런 분양제도 개선책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에 방점이 찍혔지만, 차체에 분양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분양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책도 함께 담고 있다. 새 분양제도는 먼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류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해 공개 청약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최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분양과정의 부조리 의혹 등 논란이 있어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공개 청약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분양제도는 이와 함께 현재 상속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전매제한의 예외를 이들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자본 증여 등의 경우까지도 확대했다. 또 분양신청

금 필요 없기 때문에 청약의사 등의 확인을 위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청약신청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은 청약신청금을 돌려주는 시기를 사업자 가의로 정할 수 있어 제때 신청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불 기간을 7일 이내로 못 바야 분양의 소지를 없앤 것이다.

새 분양제도는 이와 함께 현재 상속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전매제한의 예외를 이들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자본 증여 등의 경우까지도 확대했다. 또 분양신청

금 필요 없기 때문에 청약의사 등의 확인을 위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청약신청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은 청약신청금을 돌려주는 시기를 사업자 가의로 정할 수 있어 제때 신청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불 기간을 7일 이내로 못 바야 분양의 소지를 없앤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분양과정의 부조리 의혹 등 논란이 있어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공개 청약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 전기SUV '코란도 이모션' 출시
쌍용자동차가 국내 최초 준중형 전기SUV '코란도 이모션'을 오는 4월 출시하고 본격 계약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코란도 이모션'.

'경기도형 소부장 자립화 모델' 지원체계 구축

소부장 기술독립 경쟁력 확보
수요연계형 연구지원 과제 추진

경기도가 지난 2년간 추진한 소부장 자립화 연구지원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산화 기술 육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지원단'을 수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설치해 올해까지 3년간 300억원을 지원했다.

부장 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2개 품목에서 일본 역사출에 성공했으며 5개 품목에서 매출을 기록했다.

이 사업 참여기업의 기술개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인력의 밀착형 '문제해결사' 프로그램은 50건의 기술부담·비기술부담의 문제해결을 지원했다.

인천도시공사, 뉴모델 시대 대응 5본부 체제로 조직개편 단행

표는 뉴모델 시대의 전략적 대응과 기능 전문화를 위한 재배치로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기존 4본부에서 5본부 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표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대내외 경영환경에 전략적 대응,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 및 시 정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존 4개 본부에서 5개 본부로 1개 본부를 확대하면서 '자산관리본부'를 신설한 것이다.

신설된 자산관리본부에는 마케팅센터와 AMC사업단을 배치했다. 기존의 판매사업 기능과 자산관리 기능을 통합한 마케팅 센터와 도시개발공사 최초 AMC 경영인기를 받은 AMC 사업단을 확대 개편, 사업초기 최적의 사업구도 및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시 및 정부정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재정·건축본부는 주거사업본부와 재생사업본부로 각각 분리해 공공주택도 3000 정부정책 사업과 집단 신도시

내 주택공급 등 신규 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김단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신도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의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본부의 명칭을 스마트도시사업본부로 변경했다.

해당 본부는 17개 사업 약 20조원의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인천의 도시공간을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들 5개 본부는 인천의 도시공간을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조직개편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최고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 정영민기자 wk-ok@jeonmae.co.kr

서울시, 식품자영업자에 '연 1%' 대출 지원...200억 규모
대출상품 종류·대상에 따라 업체당 1000만원서 8억까지 가능
중복지원 제한 없이 수혜자 확대...식품진흥기금 총 조성액 약 30%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에 올해 2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출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10배로 늘었다.

대출 상품 종류로는 인건비·임대료 등에 쓰이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메뉴 개발 등에 사용하는 육성자금이 있다.

서울시 / 정영민기자 wk-ok@jeonmae.co.kr

충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에 40억 투입
시·군 공모 거쳐 내달 6개 지원사업 선정

충북도는 근로자 불편 해소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11개 시·군과 협력해 '2022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2차례 수요조사를 해 주

거(거숙사)환경, 근무환경, 작업환경, 산업단지 공용휴게시설, 근로자 공용주차장, 기업지원 비즈니스센터 등 6개 개선사업 대상을 정했다.

도는 도비와 시·군비 40억원을 들여 이들 사업(사업량 49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이 기업체를 대

으로 한 자체 공모 등을 통해 개선사업을 선정해 이달 안에 신청하면 내달 심의를 거쳐 시·군별 지원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군 기업·투자지원 부서나 경제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낙후된 기업환경 개선, 도내 인력 유입,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양철기기자 ckyang6@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 | 질병관리청 2021.12.17.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방역패스·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완료자: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스티커
 - 완치자: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PCR 검사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문자
 - 예외자: 예외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
-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기**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가급적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사전예약제 운영하기(권고)**

더 안전한 나쁜 일상

우리 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가능합니다

공통 주의사항 | 관리자의 수칙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성동구, 전공노 성동구지부와 '행복 경영' 손잡았다

디지털계시판 운영 개시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구정홍보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구민 만족과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종합행정타운을 비롯한 관내 거점 3곳에 디지털계시판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사업비 1억4000만원을 들여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3면 ▲용산역 광장(한강로2가 421 일대) 4면 ▲용산2가동주민센터(신흥로 90) 1면 등 3곳에 총 8면의 디지털계시판을 설치했다.

계시판은 1면당 55인치 터치스크린과 구조물을 포함 가로 1m×세로 2m 크기다. 종합행정타운, 용산2가동주민센터 계시판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용산역이 많은 용산역 광장 계시판은 대중교통 첫차 막차시간을 고려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종합행정타운에 위치한 계시판 3면 중 1면을 통해 고시공고문을 게시하고 나머지 7면은 구정 홍보에 활용한다.

구는 향후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실시간 재난 상황 전파, 실종자 찾기 등 긴급 안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올 하반기에는 운영 결과, 이용자 만족도 등을 분석해 디지털 계시판 확대 설치를 검토한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구정 이모저모

'강남라이프' 2월호 전면 개편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월간 소식지 '강남라이프' 2월호의 지면과 웹진을 전면 개편했다.

우선 콘텐츠 변화가 눈길을 끈다. 구청 사업 위주였던 지면은 ▲강남구 유명인사의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는 '강남 S' ▲관내 기업을 소개하는 '기업탐방' ▲감염·하재근 펠론가가 짚어주는 '2022 트렌드'와 '컬처인사이트' 등 다양한 코너로 채워졌다. 어르신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글씨 크기를 키운 '시니어 생활브리핑' 코너도 신설됐다.

독자 참여 기회도 확대됐다. 기존 28명이었던 명예 기자는 올해 55명으로 증원돼, 현장감 있는 구민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매일 달리는 주체별 문화 참여 코너, 포토·컬러링 이벤트는 그대로 유지된다.

업그레이드된 웹진도 눈여겨 볼만하다. 사용자 중심의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채택해 최적화된 환경을 구현했고, 모션그래픽·동영상 등 생생한 콘텐츠를 활용해 웹진 기능을 강화했다.

우이천 번창교 미디어 글라스 설치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경수)는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위해 우이천 번창교에 미디어 글라스를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번창교 난간에 설치된 미디어 글라스는 일몰 후부터 밤 10시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송출한다. 어둠이 내리면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며,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미디어글라스가 설치된 번창교 인근 산책로 나무 데크에는 데크스텝 조명도 설치돼 우이천을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빛으로 어우러지는 특색있는 산책로를 제공한다.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단 운영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고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2기 홍보단을 운영기로 하고 단원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서울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며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이 있고 개인 블로그나 SNS 계정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으로, 기사 작성이나 영상 또는 카드 뉴스 등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제2기 홍보단원으로 선발되면 주민참여예산 홍보 콘텐츠 기획, 관련 행사 취재 후 기사 작성과 카드뉴스·영상 제작, 구 공식 SNS와 참여예산 SNS를 활용한 홍보 등을 맡는다. 또한 격월로 열리는 홍보단 기획회의에 참석하고 연말에는 성과공유회도 갖는다.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ha82228@sdm.go.kr)로 보내면 된다.

저소득 장애아동 응급진료비 지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올해부터 복지 특례계층의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응급진료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1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으로, 긴급진료에 따른 응급실 이용료 중 본인 부담금에서 1인당 연 30만 원까지 회수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응급실 진료 후 신청서와 응급실진료비영수증,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준비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응급진료비 지원은 주민들의 기부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는 '희열은 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 활용될 예정이다.

상생 동반자 일과 삶 조화시킨 행복경영 실천 다짐

서울 성동구(정원오는)는 최근 전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성동구지부와 '행복 경영 선포식'을 갖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선포식에는 정원오 구청장과 이해일 성동구공무원노동조합장 등 15명의 교섭 대표위원들이 참석해 성동구와 공무원노조가 상생의 동반자로서 일과 삶의 풍요로운 조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행복 경영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직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후생복지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천구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선정

국토부주관 서울시 유일...국비 20억 원 확보 스마트 기술 통해 양천구 학원가 교통·안전문제 개선 솔루션 구축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그간 다양한 주민체감형 스마트 사업을 추진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스마트 솔루션 모델을 제시한 결과,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구는 총 40억 원 규모로 1년간 관내 학원

가의 교통·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추진한다.

구가 구축할 스마트 솔루션은 크게 5가지로 ▲학원차량 공유 ▲스마트 주차차 관리 ▲공공·민간 주차장 스마트 공유 ▲자전거 지킴이 ▲보행자·자전거 횡단 안전이다.

먼저, 학원차량 공유 솔루션은 학원밀집 지역 내 학원차량을 공유, 운행데이터를 통한 최적의 노선 설계로 학부모의 차량운행을 감소하고 학원차량 정류장을 조성해 안전한 탑승환경을 제공한다.

스마트 주차차 관리 솔루션은 불법 주차 차량을 관리, 인공·공유주차장 정보를 통해 경고하고, 인공·공유주차장 정보

를 제공한다 이동을 유도한다.

부족한 주차공간은 공공·민간주차장 스마트 공유 솔루션을 통해 공용주차장과 민간주차장을 연계, 대상지 내 주차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은 센서에 기반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도난을 방지하는 스마트 자전거 안전존을 구축,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 및 관리를 지원한다.

보행자·자전거 횡단안전 솔루션은 차량과 보행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차량의 교통위반을 예방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한 횡단을 지원한다.

구는 협력 거버넌스 운영 강화, 사업별 관계 기관부서 협의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 시민 중심 스마트 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창동민자역사조감도

(성동구 제공)

도봉구, 올 4월 '창동민자역사' 공사 재개

이동진 구청장 "창동 신경재중심지 조성과 더불어 이 일대가 더욱 발전하길"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11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로 남아있던 '창동민자역사' 공사를 4월 재개한다.

이동진 구청장은 "어려운 절차와 고비를 넘겨온 만큼 구민 숙원사업인 창동민자역사가 성공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돼 창동 신경재중심지 조성과 더불어 이 일대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지난해 5월 1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인가를 결정받아 지난 28일 시공사(롯데건설)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지하 2·지상 10층 연면적 8만 7047㎡의 규모로 2004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했지만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되어 1000여 명이 이르는 피해자들이 생기는 등 우려 국점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극적으로 기업회생인가를 받아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얻고, 임대분양을 한 결과 현재는 85% 이상 분양률을 기록하는 등 사업이 순항 중이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송파구, 교육경비보조금 199억 원 지원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친환경급식 지원·입학준비금 확대 등 교내 재난안전시설 개선·4차산업 특화교실 조성 등 미래교육 경쟁력 강화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교육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199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는 자체 교육지원체계인 송파샘(SSEM·Songpa Smart Education Model)을 기반으로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미래의 꿈이 실현되는 학교, 학생 중심 교육경비 지원'을 목표로 학생 중심의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 공간 조성, 스마트 교실 조성, 공간 복합화 등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구는 ▲유치원·학교 교육환경 개

선 및 학력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에 61억 원 ▲유치원까지 확대된 친환경급식 지원에 126억 원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 교육에 3억 원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중·고등1학년 신입생을 위해 입학준비금 9억 원 등 4개 분야에 199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19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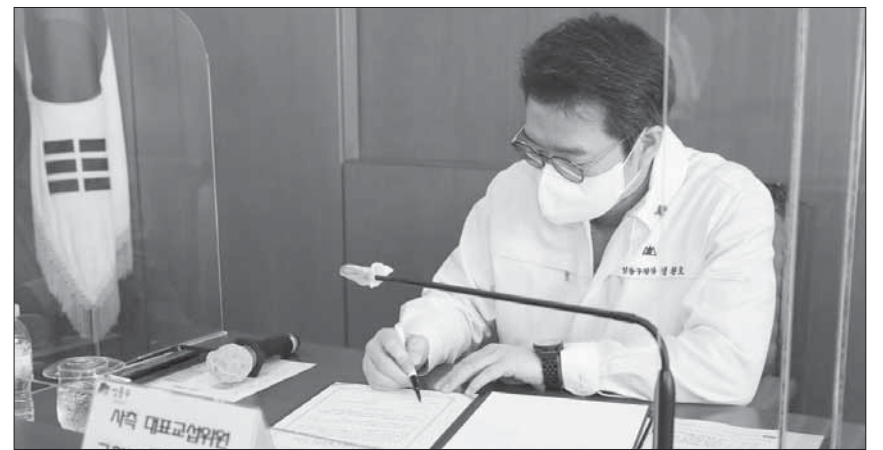
이를 통해 송파구만의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교육경비 중 교육환경 개선 분야에서 풍수해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학교 내 재해 취약시설을 정비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설 및 추가 설치 등 재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5억 원을 배

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이 된 온라인 수업에 대비하고, 4차 산업 특화교실을 운영하며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4억 원을 배정했다. AI교육, SW교육, 디지털 교과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된 전산 장비를 교체하고 이동식 카메라와 마이크 등을 갖춘 촬영 스튜디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 미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송파샘(SSEM)을 비롯한 송파만의 탄탄한 미래 교육 기반을 토대로 누구나 소외됨 없이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보편적 교육복지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행복경영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관악구, 공중케이블 정비 5개년 계획 추진

210억 투입...2026년까지 전주·통신 6825본·375km 구간 정비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공중케이블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 등 주민생활 밀착형 환경 개선을 주력하고 있다.

구는 기존의 연도별 정비계획 수립의 수시 정비 방식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한 단계적 정비로 방향을 전환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중케이블정비 및 기반고도화 2차 중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불량공중케이블 정비지원 사업에서 구 전역을 포괄하는 정비물량을 확보, 단계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주민 430명을 대상으로 인식

도 및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주민 70% 이상이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확대에 공감하는 등 공중케이블 정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관악구 전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우선정비구역 15개동 40개 구간, 수시정비구역 21개동 40개 구간을 선정하고, 회선의 노후도 및 무질서도가 심한 지역부터 순차적 정비를 추진해 지역 각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2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정비 계획 물량은 전주 및 통신 등 6825본, 375km이다. 21개 동을 아우르는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26년에는 전체 정비대상 물량의 65% 정비를 달성한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은평구, 코로나 피해계층에 자체 예산 35억 지원

정부·서울시 지원서 소외 계층 대상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정부와 서울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코로나19 피해계층을 발굴해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35억 원을 지급한다.

3일 구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보류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전역 구비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계층으로 개인 5617명과 시설 1690곳이다. 대상별로 보면 ▲미취업청년 취업지원금 50만원 ▲폐업소상공인 50만원 ▲유치원 100만원 ▲지역아동센터 100만원 ▲어린이집 100만원 ▲어르신요양시설 최대 100만원 ▲마을버스 업체 1000만원 등이다.

구는 또 정부·서울시 지원 대상에 포함

되지만 방역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 누적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곳에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택시기사에게 40만원을, 종교시설·요양시설·어린이집·장애인시설·노인복지시설 등 방역취약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 28일 추가지원 대상 중 어린이집과 어르신요양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그 외 대상은 세부 기준 결정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신청 방법과 기간 등은 추후 구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구는 감염에 취약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교 3학년 8000 명에게 '신속 환원 자가검사 키트'를 배부한다. 오미크론 확산세를 조기 차단하고 감염 취약계층인 아동들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동작구,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보건소에 신속항원검사소를 설치한 데 이어 3일부터 모든 선별진료(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중전에는 방문자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PCR검사를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감염취약 시설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 '우선순우 대상자'에 한해서 실시한다.

우선순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는 배부 받은 검사키트로 희망자가 직접 수행하며 약 15분이 소요된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음성'일 경우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종로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내달 시행

서울 종로구는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떼어오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활동주민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각종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주민이 정비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주말·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도 신속 수거가 가능하고 정비 사각지대와 불법 광고물 상습 계점구역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구는 참여 주민들에게 수거 실적에 따라 현수막의 경우 종류별로 장당(개) 1~2000

원씩 1인 최대 월 3000만원, 벽보는 월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장당 100~2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9세 이상 구민(세대당 1인)으로 한 정액 또는 7일부터 18일까지 동주민센터와 구청 도시디자인과(☎02-2148-2752)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모집 인원은 총 30명.취약계층 주민을 우대하며 결과는 이달 중 개별 통보한다.

참여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이달 중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이수자에게는 단속원증이 발급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단보보험에도 가입하게 된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전 직원 대상 '스마트 아침독서' 시작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월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매주 1회 스마트폰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국내 베스트셀러, 신간 도서 요약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직원들은 바쁜 일상 중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비대면 학습을 할 수 있다. 또한 링크된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PC를 통해 ▲해의 도서 요약 ▲글로벌 트렌드 ▲해의 미디어 브리핑 ▲분야별 학술정보 등을 찾아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 콘텐츠 수는 4000여 권으로 경제, 문화, IT, 바이오, 나노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분석 자료와 월스트리트저널, 하버드비즈니스리뷰 등 해외 미디어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구는 스마트 아침독서 참여자에게 학습시간을 인정하고, 연간 우수 학습자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송파구 장지동, 수소충전소 대신 '전기충전소'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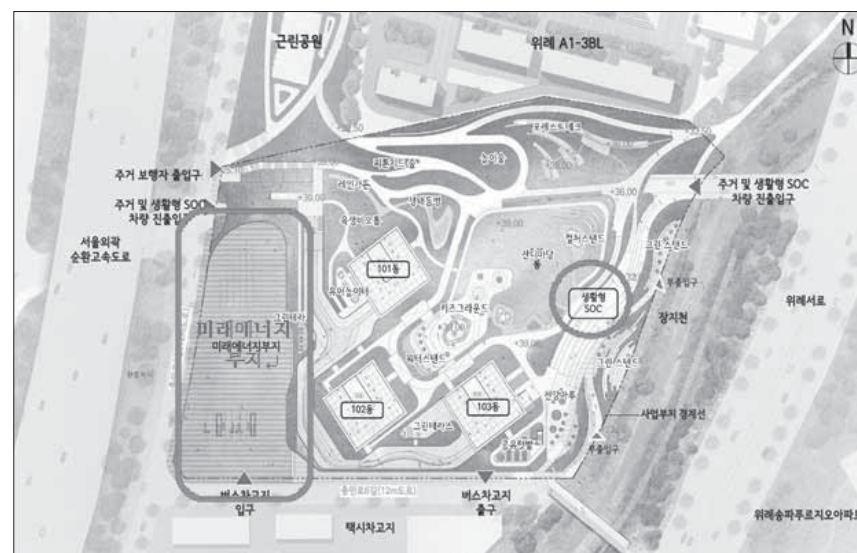
주민 안전 우려 고려해 반대 목소리 전달...서울시, 전력 수용 박성수 구청장 "주민 숙원 해결 큰 성과...사업에 속도감 붙게 최선"

서울시가 '장지 캠퍼스'에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이하 장지 캠퍼스) 일환으로 추진하던 송파구 장지동 수소충전소 설치 대신, 전기충전소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일 구에 따르면,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장지동 수소충전소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서울시에 지속 전달한 결과, 시가 이를 전력 수용해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전기충전소로 설치하기로 확정했다는 것. "장지 캠퍼스"에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이하 장지 캠퍼스)은 공공주택 공

급을 위해 장지동 862번지 일대에 위치한 버스차고지(38,119㎡)를 대상으로 행복주택(784세대), 생활SOC 시설, 버스차고지를 조성하고 미래에너지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수소충전소 설치를 놓고,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박성수 구청장은 지난 2년 간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에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시, 전기가 시대 앞당긴다"는 정책목표에 발맞춰 수소충전소를 대신해 전기충전소를 설치해 줄 것을

서울시에 정식 요청했다. 구는 향후 전기충전소 설치 및 생활SOC 시설 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에 대한 주민 대표 및 관련부서 의견을 듣고 '제3차 장지 캠퍼스'에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수소충전소를 전기충전소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사업에 속도감이 붙게 됐다"면서 "관내에서 진행되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풍납동 도시재생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주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더욱 힘써 주민 삶과 도시의 가치를 높여겠다"고 전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장지 캠퍼스'에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배치도. (송파구 제공)

구정 이모저모

관광가이드북 'It's Gangnam' 발간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강남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눠 관광, 맛집, 갤러리, 쇼핑, 뷰티, 건축물 등 테마별 명소를 소개하는 관광가이드북 'It's Gangnam'을 발간한다. 이번 가이드북은 다양한 테마의 즐길거리를 권역별로 소개해 강남구의 명소와 특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편했으며, 생생한 현장감이 살아있는 사진을 담아 여행자 시선으로 핫스팟과 동선을 보기 쉽게 구성했다. 강남구 대표 특화거리인 압구정로데오거리와 청담명품거리, 신사동가보수길 일대를 비롯해 역삼노현, 삼성, 양재천 이남 등 6개 권역의 관광정보를 업데이트했고, 권역별 투어코스를 추천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취향에 맞는 여행코스를 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제작된 'It's Gangnam'은 다음 달부터 강남구청, 동주민센터, 주요 관광안내소, 호텔, SRT수서역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전자책도 동시 발간돼 휴대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공모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주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2022년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은 5인 이상 공동체를 구성한 주민들이 녹화대상지 선정부터 녹화,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녹화사업에 필요한 재료인 꽃, 나무, 비료 등을 지원해 주는 '녹화재료 지원 분야'와 녹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공동체에 재료비, 사업 진행비 등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 지원 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65)에 이메일(mirymoon34@gangseo.seoul.kr) 또는 우편(강서구 양천로59길 38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3층)으로 신청하면 된다.

헬스리셋 프로젝트 1기 모집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신체활동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2022년 헬스리셋 프로젝트' 1기를 운영, 1월 말부터 오는 2월 2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헬스리셋 프로젝트 1기는 6주, 12회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관내 64세 이하 성인 가운데 체지방률이 높거나(30%, 남 25% 이상)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중 1가지 이상 앓고 있는 자 또는 약물 복용 중인 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 연내 총 4기를 운영, 기수별 50명씩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다. 사전에 측정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상담 후, 목 1시간씩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통해 전문 운동처방사의 지도를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5일 15시까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통합예약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영등포구 카카오톡 채널(영등포구보건소 운동상담실), 전화로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망우역사문화공원 내 호랑이 포토존 운영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망우역사문화공원 인문학거울 위에 호랑이 포토존을 4월말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포토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겁고 희망찬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옹양호 호랑이가 도약하는 모습을 담아 제작했다. LED 조명이 설치돼 있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흡연율 13.1%...전년 대비 7.5% 감소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2019년부터 시작한 금연지원 사업이 뚜렷한 흡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7월에 발간된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구 흡연율은 13.1%로, 전국 흡연율 18.3%, 서울시 16.6%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2019년 20.6% 대비 7.5%가 감소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구의 금연지원 사업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금연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금연성공 지원금을 최대 6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금연클리닉 등록일로부터 성공 기준일까지 개월 수에 따라 12개월 10만원, 24개월 20만원, 36개월 30만원을 받는다.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

청이 가능하다. 구는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를 금연에 성공한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엔 874명에게 금연성공 지원금을 수령했다. 금연클리닉도 수요일 야간과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해 직장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연클리닉을 찾아 상담한 인원은 5106명, 금연등록자는 1356명에 이른다. 또한 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금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보건진료소와 연계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금연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 단속하고 있다. 먼저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

이들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선 10m 이내와 하천변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98개 모든 초중고등학교 10m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2021년에도 금연구역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금연 단속을 펼쳐 과태료 2773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금연아파트 인증사업'도 펼친다. 아파트가 전체 주거 형태의 80%에 이르는 구 특성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6개 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인증 받았다. 한편 구는 '2021년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금연지원 정책을 통해 새해에는 많은 주민들이 금연에 성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중구, 신당 9-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서양호 구청장 "토지경계 다듬 해소하고 토지이용까지 향상 기대"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신당 9-1지구(신당동 333-38일대) 8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사업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재조사사업이 가시화된 것. 구는 이달 말 사업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경계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소유자 합의 등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말 등기절차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연간 4000여억 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토지경계 다툼을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재조사를 통해 바로잡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신당 9-1지구 일대는 625전쟁 종전 후, 지적도상의 경계와 맞지 않게 지어진 건축물들이 난립해 최근까지도 지적분쟁할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토지소유자의 동기가 요구되는 토지이용과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적재

조사(T/F)를 구성하고,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여부를 묻기 전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구는 지난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상담예약제'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동의를 이끌어냈다. 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21일 '지적재조사 주민 온라인 소통창구(밴드)'를 네이버에 개설했다.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동대문구, 24억 5000만 원 규모 재난지원금 전격 지급

지원대상 제외된 사각지대 발굴...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활용 신속 지원 미취업청년·폐업 소상공인 등 총 10개 사업 대상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0개 사업에 대해 총 24억 50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전격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 및 서울시의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발굴해 손실보상의 틈을 메우고자 추진됐다. 특히 청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중 40%

는 미취업청년 취업 장려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미취업청년과 폐업 소상공인에 각 50만 원, 개인·법인 택시운수종사자에 각 40만 원을 지원한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2020년 3월 이후 폐업 대상자 중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로 제한된

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관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타시·도 거주자라도, 회사 혹은 조합이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으면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에 각 100만원씩, 어르신 요양시설은 시설 규모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관내 마을버스 3개 업체는 코로나19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만큼 1,000만원씩 지원하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마포중앙도서관 어린이자료실 확장 리모델링 완료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마포중앙도서관 어린이자료실 확장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8일 기쁜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시작해 올해 1월 마무리됐다. 어린이자료실 면적은 약 1200 제곱미터(㎡)로 기존보다 약 1.7배 정도 넓어졌다. 또 교과 연계 도서, 영어 원서 등 영어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분야의 어린이 책 약 1만 권 이상을 확충했다. 넓어진 공간에는 고학년용을 위한 조명이 있는 열람테이블, 독서와 과제를 할 수 있는 동아리방, 전시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전시실 등이 들어섰다. 이로 인해 중

앙도서관 어린이들이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중앙도서관은 어린이자료실의 재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8일 '어린이자료실 모임방'에서는 초등 학교 1-2학년 학생 10명이 참여할 수 있는 '나만의 팝업북 만들기' 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최미정 독서·미디어 전문가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어린이자료실 누리마루'에서는 '제58회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한 서현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이 열린다. 이번 만남은 서현 작가의 최신작 '호라이', '호라이 호라이' 작업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10세

서정익 기자 seo@jeonmae.co.kr

서대문구의회, 올해 첫 임시회 7일 개최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 27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임시회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뒤 14일 2차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관련 조례와 규칙안들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안건은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자원봉사활동 지

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리외 의원 발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양리외 의원 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유유넷 의원 발의)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유넷 의원 발의) ▲건설사고 및 조사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등이다.

임영찬 기자 limhc@jeonmae.co.kr

강동구, 아동학대 '옐로우 톱'으로 사전 차단

초등학교 9곳에 신고함 설치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주민 누구나 손쉽게 익명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옐로우 톱'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옐로우 톱은 안전을 상징하는 '옐로우(Yellow)'와 이야기하다 '토크(talk)'의 합성어로, 주민 접근성이 좋은 9개 초등학교 정문 또는 후문에 신고함을 설치해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옐로우 톱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주민지원단이 접수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구청 아동보호팀에 전달한다. 내용에 따라 상담사례와 학대의심사례로 분류해 상담사례의 경우 아동보호전문인력을 매칭해 상담을 실시하고 학대의심사

례는 학대조사와 함께 아동 보호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한해 구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238건으로, 이 가운데 95건은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 응급조치 및 전문사례관리 등을 지원했다. 또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구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강동구 전 부서 합동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다각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최근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독립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인사·행정·법률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용균 의장은 "인사위원회의 출범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구민을 위한 강북구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Q&A로 알아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1회 : 제20대 대통령선거 개요

<p>Q1.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과 사전투표일은 언제인가?</p> <p>A1.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투표는 3월 4일(금), 5일(토) 이틀간 실시되며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p> <p>Q2. 이번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선거가 있나요?</p> <p>A2. 2022년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며, 서울의 경우 총선과와 서울구급선거에서 국회의원보궐선거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됩니다.</p> <p>Q3.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언제인</p>	<p>가요?</p> <p>A3. 2월 13일(일)부터 2월 14일(월)까지 이틀간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p> <p>Q4.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p> <p>A4. 2월 15일(화) 0시부터 선거일 전 일인 3월 8일(화) 밤 12시까지입니다.</p> <p>Q5. 대통령선거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p> <p>A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대통령선거 특집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선거정보시스템'(infonec.go.kr)을 검색하면 됩니다. 선거정보시스템에서 대통령선거 기본현황,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현황, 투·개표현황 등 대통령선거의 각종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신문위 제공)</p>
--	---

소상공인 초저금리 융자지원

인천시가 3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 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 한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연간 70 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신용보증 2000만 원한도), 상환기간 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 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초저금리 로 지원되며,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 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기타 융자관련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is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주민건강검진 위탁 협약

인천 웅진군은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시지부와 '2022년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면별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은 도서주민의 만성질환 을 조기 발견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오는 8 일 북도면을 시작으로 연내 7개면을 순회 검진할 계획 이다.

검사대상은 만 20세 이상 웅진군 주민이며 가능하며, 검사항목은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과검사(안 저안압검사)를 비롯해 혈액 및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방사선 검사 등 30여종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맹청수기자 mchs@jeonmae.co.kr

담배소매인간 거리 제한 50m~100m로 확대

인천 서구가 시에서는 최초로 1일부터 담배소매인간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 시행한다고 3 일 밝혔다.

앞서 구는 이번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을 위해 지난 해 담배소매인 영업시간 적정거리 도출 연구용역을 실 시했다. 이후 '인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 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11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0일 규칙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강화(50m→ 100m), 시행일(2022. 2. 1.) 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 치(5년 유예기간) 등이다.

인천/맹청수기자 mchs@jeonmae.co.kr

물동량 증대 기여 포워드·화주사 인센티브

인천항만공사는 2021년 인천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포워드와 화주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3 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포워드·화주사 인센티브는 이달 28일까 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사내 자체 집계 실적을 사전 접수하며 실적 검증은 거쳐 최종 인센티브 를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수출 증가분'에 국한됐던 포워드 인센티브 가 올해부터는 인천항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화물 수출입 실적'을 포워드 인 센티브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인천항 마주 직항 항로를 통한 '직'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에 있는 화주, 인천항을 통해 방동·냉장(Reefer)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에 있는 화주, 인 천항을 통한 전자상거래 화물 수출입 실적에 있는 화주 도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맹청수기자 mchs@jeonmae.co.kr

수도권매립지 30년간 1억5871만t 폐기물 처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30년간 수도권매립지에서 1억5871만t의 폐기물이 처리됐다고 3일 밝혔다.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시·도별 반입 비율은 서울시 55%(8729만t), 경기도 28.5%(4528만t), 인천시 16.5%(22613만t)이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인구 1인당 폐기물 반입량은 인 천 336kg(42.4%), 서울 281kg(35.5%), 경기 175kg(22.1%) 순이다.

종류별로는 건설폐기물이 39.3%(6246만t)로 가장 많 이 반입됐다. 이어 생활폐기물 35.9%(5706만t), 기타 사업장 폐기물 17.1%(2709만t), 하수 슬러지 5%(799 만t), 음식물 폐수 2.6%(410만t) 순이다.

인천/맹청수기자 mchs@jeonmae.co.kr

배달음식점 1만2084개소 위생점검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 및 김밥·도시락 등 다소비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식품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1만2084 개소의 배달음식점에 대한 전수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특히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만2084개소 의 배달업 등록업소에 대한 전수 위생점검을 통해 종사 자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총 36건 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상호 미표시 등 준수사항 위반 2 건,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위생도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건, 폐기물용기 미실시 등 시설 기준 위반 16건, 냉장제품 실온보관 등 기준 규정 위반 9건이다.

인천/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변화·성장하는 도시 인천 브랜드화·홍보 힘쓸 것”

3先 전략으로 명품도시 인천 만든다 <下>

부평캠핑마켓 반환·토양오염정화·개방구역 확대... 인천 숲길 조성사업 탄력 내항 1·8부두 우선개방·항만재생 사업 본격화... 해양관광·문화거점으로 조성

인천시는 8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 온 부평캠핑마켓의 반환공여구역 완전 반 환과 토양오염정화, 개방구역 확대에도 힘 을 쏟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AB구역 환경정화 완료, 토 지소유권 이전 및 단계적 개방구역 확대, D 구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와 완전반환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캠핑마

켓의 가치 발굴과 미래전략 등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선7기 숙원이자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추 진에 급물살 타면서 상부 '인천 숲길 조성 사업' 또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 인다. 공단과교교-서인천IC 간 인천대로에 조



성이 추진되는 숲 길 조성 사업이 경 인고속도로 구간까 지 확대되면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 적으로도 손에 꼽 는 도심 숲길이 조 성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시는 먼저 오는 2026년까지 예산 65억 원을 들여 10.45km 구간에 인천 숲길 중앙 녹지를 조성한다. 내항 1·8부두 우선개방 및 항만재생 사 업 또한, 올해 본격화된다. 특히 시는 조만간 해양수산부·인천항만

공사(IPA)와 관련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 고, 내항 1·8부두를 해양관광·문화거점 으로 조성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제의 차질 없는 추진 계획이 보고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운영체제 개선 협약체결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 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영종주민 대중교통 환인 시스템 시연과 주민설명회 를 개최한 이후, 시스템 구축 및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제 적용, 페이백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남춘(사진) 시장은 “그동안 ‘살기 좋 고 오가기 편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시해평화도로 1기와 제3 연륙교, 서울7호선 청라 연장 작품, 장기미 집행 공원 도로 확충과 캠핑마켓 우선개방, 웰마비다달자 개통 등 수많은 성과를 이뤄 냈다”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도시계획과 재생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 고, 우리보다 앞서간 도시에 대한 사례 연 구나 벤치마킹에도 힘써야 한다”며 “시민 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도시 인천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브랜드화하고, 홍보하는 일에도 힘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부평구,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인천 부평구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229 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에 올랐다.

3월 구에 따르면 지역의 교통문화 수 준을 보여주는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 사’에서 구가 89.56점을 받아 전국 지자체 229개 중 1위를 차지했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의 교통 안전 의식 수준을 지수화한 값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운전자(신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등 8개), 보행자(무단횡단

실태조사서 89.56점 받아 교통안전도 전국 평균 ‘훌쩍’

반도,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폰기 사용률 등 3개), 교통안전(지역교통안전정책 이행 정도, 교통사고 사망자수 등 7개) 등 총 3개 항목에 18개 지표를 평가했다.

특히, 구는 이번 평가 중 중점적으로 추 진한 교통안전 분야에서 21.26점을 받았는 데, 이는 전국 평균 17.54점 대비 매우 높

은 수치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번 결과는 교통안 전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한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교육, 보행자킴이 운영 등 의 사업의 성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도시 부평구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인천/맹청수기자 mchs@jeonmae.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해천나래 지하차도 상부에서 박남춘 시장, 신은호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다. <인천시 제공>

인천경제청, 해천나래 지하차도 개통...영종하늘도시 교통 정체 해소 기대

3일 오후 5시부터 해천나래 지하차도가 개통되고 이를 연결하는 임시도로도 준공 되면서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정체가 크게 해소되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해천나래 지 하차도 상부에서 박남춘 시장, 신은호 시의 회 의장,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청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다.

지난 2013년 11월 준공된 영종하늘도시 해천나래 지하차도와 이를 연결하는 하늘 대로는 개설된 뒤 8년 동안 시점 부근(제

3연륙교~해천나래 지하차도, 길이 약 2km)이 개통되지 못하면서 그동안 영종하 늘도시 주민들이 많은 교통 불편을 호소 해 왔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영종하늘도시 주민들 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LH 등 관계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를 가진 후, 지난해 12월 제3연륙교 1공구 시점 부근에 하늘대로와 영종대로를 연결하는 길이 480m~폭 9m 규모의 임시도로를 착공 이년에 완공함으 로써 해천나래 지하차도 개통을 위한 여건

을 마련했다. 해천나래 지하차도 개통과 임시도로 개 설로 그동안 교통정체에 시달렸던 영종하 늘도시 주민들의 교통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춘 시장은 “해천나래 지하차도가 개 통되고 임시도로도 개설돼 주민들의 교통 체증이 크게 해소하게 됐다”며 “이와 관련 제3연륙교 또한 오는 2025년 개통에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계양구, 유기 동물 입양 문화 장려 지원비 인상한다

마리 당 최대 20만원 → 최대 25만원까지 혜택 개·고양이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자만 가능

인천 계양구는 유기 동물 입양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2 년도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의 지원비를 인상한 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구민은 작년까지 마리 당 최대 20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올해 부터 최대 25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계양구 동물보호센 터(신영재동물병원)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내장 형 동물등록비, 치료비, 진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애견보험가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 내에 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에 직접 방문해 입양확인서, 세부 내역 영수증, 통장 사본,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팀 ☎62-450-6844)으로 문 의하면 된다. 인천/맹청수기자 mchs@jeonmae.co.kr

신천지 초등 세미나 제9과 맞아...허재원 ‘비유한 보물·부자’ 눈길

지구촌 신앙인들에게 천국을 알리는 성경 세미나가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주관하는 초등 세미나가 3일 제9과를 맞이했다.

9과제 진행된 초등세미나 강의에서 신천 지예수교회 마태자와 허재원 강사는 ‘비유 한 보물·부자’ 주제를 들고 나와 눈길을 모았다.

허 강사는 육적인 보물과 영적인 보물, 하나님의 보물과 사탄의 보물, 육적인 부자 와 영적인 부자 등에 대해 설명했다.

허 강사에 따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 의 종류는 ‘육적인 보물’과 ‘영적인 보물’ 두 가지가 있다. 부자로 ‘육적 부자’와 ‘영 적 부자’로 나뉜다. 사복음서나 계시록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돼 무슨 뜻인지 알기 어 렵운데, 그 뜻을 알려면 비유를 깨달아야 한다.

허 강사는 “영적인 보물의 참뜻은 말씀” 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 또한 보물”이라고 밝혔다. 마태복음 6장 의 금 달란트에 대해, 허 강사는 “달란트는 금과 은의 수량을 세는 단위로 종들에게 준 것은 달란트가 아니고 금이다. 여기서 금은 실제 금이 아니라 영적인 금, 곧 말씀을 주 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이 시대에 천 국 비밀 비유의 참뜻이 밝히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예언이 때가 돼 그 실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비유 풀이 세미나를 유튜브로 중계하 는 것은 교단과 교리를 넘어 하나님과 천국 을 소망하는 신앙인들이 말씀이신 하나님 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내달 28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 주 2회로 모두 24 회에 걸쳐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를 진행한다. 시온기독교신학교생 강사들이 나서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신 천지 공식 유튜브 채널(https://bit.ly/2021revs)을 통해 24개 언어로 중계되며, 지난 회자에는 해당 채널에서 다시보기 가 가능하다.

인천/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남동구, 아이사랑퓨터 7·8·9호점 신규 설치 인천 남동구는 아이사랑퓨터 7·8·9호점을 신규 설치하고 3

일 운영에 나섰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돼 아이사랑퓨터를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올해도 아이사랑퓨터 3곳을 확충해 가정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연수구·인천대, 제2의료원·공공의대 설립 협력

범시민 서명운동·홍보 활동

인천 연수구가 국립 인천대와 다시 한 번 굳건한 관계를 확인하고 인천 제2의료 원 설립과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 로 했다. 구는 최근 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고남석 구청장과 박종태 인천대 총장, 이호철 대외협력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제2 의료원 및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구와 인천대의 이날 협약은 인천 제2의 료원 설립과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의 성공 적 유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 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상호협

력과 범시민 서명운동 및 홍보, 인천 제2의 료원 설립과 부지 인근 인천대 공공의대 설 립을 위한 상호협력, 기타 양 기관의 교육 협력 등에 더 큰 탄력을 받게 됐다.

양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은 협약을 마 친 후 연수구 스페이얼 광장에서 진행 중인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캠페인에 참석 해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대외 활동을 벌 였다.

고남석 구청장은 “인천 제2의료원을 남 부권에 유치하고 그 인근에 인천대 공공의 대를 설립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적 극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코로나19와 같 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 우수 의료인력 양 성,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후세들을 위 한 현재 세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인천/맹청수기자 mchs@jeonmae.co.kr

인천경찰청 ‘설 종합치안대책’ 결과 교통사고 등 줄어

전년 동기 18.3건 → 8.2건 대폭 감소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10일 동 안 ‘설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112 신고와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등 설 기간에 대형 사건 사고 없는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 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 지 112신고는 일평균 2885건으로, 지난해 설 기간 2781건이었던 것에서 3.5% 소폭 감소했다.

단, 이 기간에 가중폭력 관련 112신고 건 수는 일 평균 78.8건으로 전년 63.7건 대비 2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일 평균 8.2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18.3건 대비 55.2% 대폭 감소했다.

인천청은 생활안전 기능에서 권익점 ·금은방 등 현금대여취급소를 대상으로 긴급신고시스템(비상벨 등)을 점검하고, 무인점포 범죄예방단단을 통해 취약점을 업무에게 통보하는 등 명절 기간 대외 취약 요소에 대해 특별방범 활동을 벌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분위기를 사 전 제압해 평온한 치안 확보에 도움이 되도 록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 는 치안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인천 경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맹청수기자 mchs@jeonmae.co.kr



(재)인천동구장학재단은 최근 '2022년 근로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인천동구장학재단 제공>

인천동구장학재단, 근로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재)인천동구장학재단은 최근 개관한 유 로기지 동구청년2(동구 송림로14)에서 ‘2022년 근로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허인환 이사장은 “근로장 학생으로 근무한 20일간의 경험이 자양분

이 돼 동구를 빛내고 사랑하는 우수한 인재 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장학 재단은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월근기자 wk-ok@jeonmae.co.kr

성남청년작가전 첫 전시

경기 성남문화재단이 청년작가를 발굴·지원하는 '2022 성남청년작가전'의 첫 번째 전시로 파정원 작가의 '감정의 레이어: Emotional Layers'를 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성남청년작가전'은 성남지역의 청년예술가를 발굴하고 전시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창작활동의 고민을 분담하기 위해 기획한 지역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지난 2015년 성남큐브미술관 내 반달갤러리 조성을 시작으로 올해로 8번째 지역 청년작가들의 건강한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예술적 공간과 소통의 길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올해 첫 번째 청년작가로 소개되는 파정원 작가는 캔바스를 가득 채운 검은색의 절제된 화면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이일영기자 leely@jeonmae.co.kr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 운영

경기교육청 소속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최신 정보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VOD)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3000여 편의 국내 및 해외 영화, 뉴스·스포츠 등 70개 채널의 방송 서비스, 다국어센터 등 약 20만 종 이상의 콘텐츠다.

서비스는 학습관 회원이면 누구나 3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이용 가능하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조한일 관장은 "차별화된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다채로운 문화생활 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광산촌 옛 모습 역사 주민 구술 기록 책자 발간

강원 정선 사북공공도서관은 광산·동운동의 진원지이자 폐광에 맞선 주민운동의 발상지인 광산촌 공동체를 지켜온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구술 형태로 기록한 책자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책에는 주민참여 구술기록집 '광산촌 공동체의 기억 2'를 펴냈으며 기록집에는 사북안대야리 관리소장인 정해수(88·남)씨를 비롯해 사북2리 서양숙(75·여)씨, 도사막이파트 주민 정영규(74·남)씨, 사북2리 이숙자(88·여)씨, 고토일 주민 윤여홍(88·남)씨 등 5명의 주민들이 전하는 옛 광산촌의 생생한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기록집은 단광촌 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 탄광 운영 모습 등 단광마을의 변천사까지 잊혀져가는 삶과 희미해지는 기억을 주민이 스스로 찾아내고 전하는 이야기를 구술자와 면담자의 대화형태로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2차 대상자 모집

강원 칠원군보건소는 전년도에 추진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힘입어 이달부터 스마트한 건강관리 2차 참여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1년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했을 시 약 40여명이 참여해 대상자 70%이상이 건강행태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고 사업내용 89%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번 요구를 적극 반영해 전년도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과 직장인들에게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생활 속 건강습관 실천을 유도해 군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 지역특기자 jimb123@jeonmae.co.kr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신청

강원 인제군이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2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

군은 주민 스스로 공동의 마을의제와 지역 현안문제를 찾아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주민자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2020년 '인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인제군 자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분야는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주민의 복지증진,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및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군 내 5인 이상 단체로 지원기간 내 군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총복 혁신도시사업은 국가 수호안전 전담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가기술표준원과 수소 가스안전체험 교육관, 수소 사용자 부품지원센터, 에너지신용융합지구 등 관련사업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북 도 신청사업과정은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총복이 차세대 국가 신에너지 정책의 중심인 액화수소 산업의 안전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 이종빈기자 eib@jeonmae.co.kr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건립

총복 읍성 금영테크노밸리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오는 2025년 운영을 목표로 건립되는 이 센터는 대지면적 8085㎡, 건축 연면적 5215㎡, 국비 297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332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액화수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대상이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어 검사 인프라가 전무했다.

총복 혁신도시사업은 국가 수호안전 전담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가기술표준원과 수소 가스안전체험 교육관, 수소 사용자 부품지원센터, 에너지신용융합지구 등 관련사업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북 도 신청사업과정은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총복이 차세대 국가 신에너지 정책의 중심인 액화수소 산업의 안전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주/ 양철기기자 ckyang6@jeonmae.co.kr

'형성 어사眞토' 프로젝트 올해도 역점 추진

2025년까지 진행... '퇴비로' 앱·생산이력 시스템 개발 주력 "지역 내 경축순환 활성화 기반 조성 대표브랜드로 육성할 것"

강원 횡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 평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 이미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 농업인과 로컬푸드 매장으로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된다.

총 4단계에 걸쳐 추진되며 1단계 농지관리, 2단계 생산관리, 3단계 유통관리, 4단계

를 도입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형성의 건강 한 평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 이미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은 관내 농업인과 로컬푸드 매장으로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된다.

총 4단계에 걸쳐 추진되며 1단계 농지관리, 2단계 생산관리, 3단계 유통관리, 4단계

계 준수인증 농산물 생산이력 및 품질관리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토양(중금속 포함), 축분노퇴액비, 농업용수 등 2224 농가를 대상으로 6070건 웰스튜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출하 전 농산물 잔류농약(320성분) 1940건 로컬푸드 매장 등 안전성검사 지원과 함께 작목별 맞춤형 유용 미생물을 5개소에서 2240 농가, 201톤 공급하는 한편 가축분뇨 자원화 방법 등 시책을 발굴해 특허등록 2건, 특허출원 4건, 상표출원 4건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농촌진흥청 R&D 공모사업으로 '형성현우 중심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이 선정돼 2년간(22년~23년) 10억원을 지원받아 지역 현안 해결 기술지원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공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1차년도) 종합분석실 실험인 웰스튜 분석서비스 내실화(잔류농약 320성분→464성분 분석확대)가 이뤄진다.

또한 고품질 우분 퇴비 생산 및 자원화 기술보급, 가축분뇨 자원화 '퇴비로' 앱 개발 및 시범운영과 '형성 어사眞토' 생산이

력 시스템 개발, 우분 퇴비 활용 시설체조 및 시료용 옥수수 2기작 재배, 온실가스 감축부문 퇴비 부족 축산 한우농가 전용 미생물 공급을 추진하는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 내 경축순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조세제정, 생산이력제 및 인센티브를 도입해 군수가 인증하는 건강한 '형성 어사眞토'를 형성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형성/ 안중록기자 iyahn@jeonmae.co.kr



강원 정선군 오반동 입구 폭 10.9m 길이 30m 구간을 왕복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한 철도가도교 공사를 준공했다.

<정선군 제공>

정선군, 오반동 철도가도교 준공...주민 숙원 해결

관광객차량·보행자 안전 교통환경 기대

강원 정선군 오반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위해 철도가도교 재가설 사업에 들어간 오반동 입구 철도가도교 확장공사가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정선군은 오반동 입구 폭 10.9m 길이 30m 구간을 왕복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한 철

도가도교 공사를 준공했다고 3일 밝혔다.

총공사비 2억 여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는 기존 철도 밑을 통과하는 가도교 확장공사로 가치를 정상 운영을 중지하면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

한편 정선군 오반동 입구 철도가도교가 완료된 마무리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예산 3리, 4리, 5리 200명의 주민과 정선 양배

목장을 찾는 관광객의 유일한 통로이나 노후시설과 시계화보 불량으로 인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농산물 출하와 보행이 용이해져 지역 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양택 건설과장은 "오반동 입구 철도가도교 재가설 사업 준공으로 주민들과 양배목장을 찾는 관광객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부천시, 지난해 재산세 1604억 징수 '역대 최대'

과세기준 공시지가·주택가격 상승 주요인...올해 31억 증가한 1635억 전망

경기 부천시는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이 160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 734억원(45.8%), 토지 625억원(38.9%), 건축물 245억원(15.3%)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1278억원 이후 최근 5년 동안 재산세 징수 증가폭은 326억원으로 20.3%가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과세기준

이 되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올해 부천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8.87%(전국 10.17%, 경기도 9.86%),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7.08%(전국 7.34%, 경기도 6.72%)로 인상해 확정 고시함에 따라 시는 올해 재산세 세입 징수액을 지난해보다 31억원이 증가한 1635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

움을 겪는 피해 소상공인, 기업 등에 재산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징수유예(최대 1년)하고 착한 임대인과 영업을 제한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채 재산세1팀장은 "확보된 지방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징수 유예 등 세제혜택 지원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천/ 오세경기자 osk@jeonmae.co.kr

경기도-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10만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3일부터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도는 올해 약 470억 원을 투입해 약 47만 622명의 대상자에게 개인별 연간 1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예산 규모를 확대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더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급대상자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발급기간은 3월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다. 발급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자동재충전을 진행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올해도 수급자격이 유지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동재충전이 진행됐다. 자동재충전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대상 470억 투입...자동재충전 진행

주민센터/누리집/모바일앱/고객센터 ARS(1544-3412)를 통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개인충전금 제외) 지역별 분야별 가맹점 정보 및 사용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로 선정

보조금 6000만원 확보...다양한 컨텐츠 활용

경기 양평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용문산 산나물 축제'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됐다.

지난 2018년 제9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부터 지난해 제 11회 용문산 산나물 축제까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선정된 것이다.

올해 제12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는 비대면 축제를 기반으로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을 가미해 축제의 다양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나물이 가진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가지의 홍보 영상 제작을 준비 중이며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포함해 예정이다.

또한 이번 경기관광축제의 선정에 따라 지원되는 도비보조금 6000만원은 양평의 컨텐츠를 지원하는데 활용돼 축제의 전방적인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3일 정동호 군수는 "작년에 산나물 축제는 비대면 추진과 함께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코로나19로 힘든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축제로 기획한 점을 심사위원들이 높게 평가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 축제도



경기 양평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용문산 산나물 축제'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됐다.

<양평군 제공>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이지만 안전하면서도 국민과 군민이 힐링할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제12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는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비대면과 일부 대면이 혼합된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보령 대천·무창포 해수욕장 7월 2·9일 각각 개장

올여름 해수욕장 운영 기본계획 수립

충남 보령시는 올여름 해수욕장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대천해수욕장은 오는 7월 2일, 무창포해수욕장은 7월 9일 각각 개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령방문의 해를 맞아 여름 방학 및 휴가 기간 많은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국민 관광지 대천해수욕장은 7월 2일 개장에 8월 21일까지 51일간 운영하고 산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해수욕장은 7월 9일 개장에 8월 15일까지 38일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개장 전 관광객 맞이와 위해 8월까지 편의시설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고 수질 정화 시설도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갖추기로 했다.

또한 유관 기관·단체장 운영계획 간담회 및 개장준비 추진상황 보고회, 준비상황 현장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개장 기간에는 드론 및 인공저는 로봇 등 최첨단 시스템을 활용한 방역대응을 수립 시행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과 야구야구대 학생·청소년 인부 등 근무 인원을 대천해수욕장은 1일 최대 407명, 무창포해수욕장은 1일 최대 82명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월과 6월, 9월과 10월 경시에도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구조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해 보령형 K-방역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해수욕장으로 명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개장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이경민기자 leegy@jeonmae.co.kr

동두천시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신속·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기대

경기 동두천시는 주민 불편 해소와 민원 편의를 위해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시 내에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9곳으로 확대됐다. 이 중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민원실, 생연2동·불현동·상대동·소요동 행정복지센터 등 5곳이고,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동두천 중앙역, 지행역, 농협 하나마트 등 4개소에서는 운영시간 중 이용이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차량, 국제증명, 재방세, 병적 등 15종 60여 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 결제는 현금·카드(신용, 체크) 모두 가능하다.

시는 소요동 행정복지센터가 소요산, 산림욕장, 박물관 등의 관광시설과 인접해 있고 동양대학교, 지방 산업단지 등 타 지역 유동 인구가 많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보다 신속·편리한



경기 동두천시는 주민 불편 해소와 민원 편의를 위해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한다.

<동두천시 제공>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두천/ 진영환기자 jyh@jeonmae.co.kr

군포시,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모사업 실시

14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 군포시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2022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분야는 양성평등 인식 제고,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젠더 폭력 예방 및 의식확산 등 4개 분야이며 총 사업비 2500만원으로 각 사업별 선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시에 소재하는 기관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 보호, 복지 증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오는 14일까지 시 여성가

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서류 및 자체평가 심사와 군포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안으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엄경화 시 여성가족과장은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정도로 중요한 과제임에도 충분히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역 내 성인지 정책 활성화 등에 관심있는 많은 단체와 기관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파주시,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개시

25일까지 접수

경기 파주시는 내달 새학기를 맞아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영유아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3월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3월 1일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아동으로 25일 18시까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3월 1일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아동으로 25일 18시까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3월 1일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아동으로 25일 18시까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 변동 시에도 반드시 보육서비스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예 아동이 어린이집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 변경 단이 해당된다. 단, 연장중기로 인한 0~2세 기본보육(연장보육 포함)에서 3~5세 누리과정은 자동전환돼 신청이 불필요하다.

이번 사전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종류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86개월 미만 아동대상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대상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대상 유아학비 등이 있다.

파주/ 임정일기자 imci@jeonmae.co.kr

학교안전사고 예방관리 총력

경북교육청은 도내 재해 발생교와 3학교(중·초·석식) 등 안전보건에 취약한 100교에 대한 위험·유해 요인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이를 위해 최근 경북교육청 침묵도서관에서 학교 급식실 기계·기구 효과적 점검 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이번 점검에는 2억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점검 대상 기관 100교는 1년간 매월 학교 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해 위험기구 등에 대해...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안전보건취약교 전문기관 위탁점검이 학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현장이 안전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치매어르신 든든한 짝꿍이 돌봐요”

전남 고흥군은 치매안심센터지원이 치매어르신과의 '짝꿍'을 맺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홀로 사는 치매 어르신 36명과 센터직원 간 짝꿍을 맺게 되는데 직원 1명당 3명의 어르신이 매칭될 것으로 보인다.

담당 직원은 짝꿍 어르신 집을 월 1회 이상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방문 중에는 건강 상태 살피기, 치매약 투약 확인, 집안 청결 관리, 전열기 점검을 비롯, 안전꾸러미도 배부하게 된다.

이 밖에에도 수시로 안부 문기와 위험요인 제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19년 개소, 코로나 상 황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치매 검진을 꾸준히 진행해 치매 증상 조기발견에 힘을 쏟았으며 치매 진단비와 치료비 지원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고흥/ 구자형기자 kih@jeonmae.co.kr

인전교육 최우수 평가기관 표창

전남 김진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최근 (사)한국아동청소년 안전교육협회 전남지회로부터 2021년 안전교육 최우수 평가기관 표창을 받았다.

농촌활성화센터는 출범 후 농촌재난안전지도사, 농촌 체험지도사, 소풍전문가, 한방약사지도사, 제다(製茶)역량 강화사업 등 다양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 11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특히 최근 작년부터, 병영면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재난안전지도사 교육'을 실시해 총 4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운영감 센터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농촌재난안전지도사 교육 전담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나머지 읍면 주민들도 지도사 양성 교육으로 강진주민의 재난안전역량을 키워 나갈 계획"이라며 "농어촌이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관 표창과 함께 운영감 센터장이 안전교육협회 중앙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전달 받았다.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전문 인재 양성

경북 청송군은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2022년도 청송군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농업인대학은 청송 사마산업의 발전과 경영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사마산업과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미래농업에 대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미래 농업인으로 구성된 올해로 각 10기, 13기를 맞았다.

입학정원은 과정당 40명이며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농업기술센터와 현장에서 각 과정당 총 20회, 90시간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며 입학원서는 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군농업인대학장인 윤경희 군수는 "청송사마의 명품화는 물론 미래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길 전문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나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승/ 김태진기자 tikim@jeonmae.co.kr



주택 화재예방 1인 릴레이 캠페인 성료

경북 문경소방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13일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공강대 형성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위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진욱 서장은 "이번 1인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 안병권기자 ahn-bk@jeonmae.co.kr

‘희망경산’ 민선7기 눈부신 성과 마무리 온힘

경북 3대 도시 도약·청렴 공직문화 조성 등 청렴1등도시 발돋움 4차신학 선도·청년희망도시 실현 등 시민 중심 행복도시 중점 추진



경북 경산시는 민선7기 성공적인 마무리와 새해 주요업무 계획 점검에 나섰다.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을 목표로 끊임없이 달려온 시는 시민들과 약속한 많은 사업들을 내실있게 이행해 시장전반에 걸쳐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지속적 인구 증가로 경북 3대 도시 도약

시의 인구는 지난 2017년 9월 경주시 인구를 추월해 현재 28만 명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타시군과의 인구격차를 늘리며 경북 3대 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 투명과 신뢰의 청렴 1등 도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시장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시부 전국 1위 달성했고 2019년부터 경북도 내 유일하게 3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받으며 청렴1등도시의 면모를 공고히 하고 있다.

● 더 큰 경산을 이끌 산업기반 조성

경산지식산업지구와 경산4차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해 산업단지 300만평 시대를 열었고 지식산업지구 내 6개 국책연구기관과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연구기관을 유치해 급변하는 미래 산업환경 변화과정에

서 혁신의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창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큰 디딤돌이 될 경산미래융합타운사업(총 사업비 810억 원)이 2022년 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돼 청렴에서 성장까지 눈 스톱 지원하는 플랫폼을 조성하고 있다.

● 지역특화산업 지원기점 구축

화학품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스페티비즈니스센터가 준공돼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5만평 규모의 화학품 특화단지도 착실히 조성중에 있다. 첨단소재산업으로 확장돼 청렴에서 성장까지 눈 스톱 지원하는 플랫폼을 조성하고 있다.

● 청년희망도시 실현

청년들의 역의 유출을 막고 청년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기본주택 조성, 청년정책참여단 구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청년 키친랩,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사업과 청년희망 공작소, 청년 지식 놀이터 건립, 청년희망 Y-STAR 프로젝트 등 청년

들이 원하는 시책 추진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행복도시

대입지구, 중산지구, 하양지구에 총 2만20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며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23년 준공) 등 광역수준 교통인프라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산시립박물관이 전시실 리뉴얼을 마치고 재개관을 했고 압록구 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복원을 위한 임담유적전시관 건립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 소외 없는 보듬 시장

지난해 3월 경북권역 재활병원을 개원했고 5월에는 노인 인권을 보호를 위해 경북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개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을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외에 착한가게·일터, 애너 소사이어티 기업자 도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북 사랑의 열매 유공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며 소외없는 보듬시장을 구현하고 있다.

최영호(사민) 시장은 3일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올해도 희망경산의 완성과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고 다양한 지역주력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산/ 변경호기자 byeon-KH@jeonmae.co.kr

산청 독립운동 100주년 테마공원 완공

경남 산청군은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독립의 당위성을 주창한 유럽 독립운동가 면우 박중석(1846~1919)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3·1운동 100주년과 파리장서 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럽독립기념관, 이동서당, 파리장서 기념탑 등이 위치한 단성면 남사에담촌을 유럽 독립운동의 시발지로 가꾸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은 독립운동이라는 역사적인 요소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 남사에담촌을 연계해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독립운동 체험시설도 조성 남사에담촌 연계 관광자원화

산청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테마공원 조성사업에는 총사업비 34억5000만 원(특별교부세 11억 원, 도비 2억 원, 군비 21억 5000만 원)이 투입됐다.

유럽독립기념관과 이동서당 인근에 광복석 생기를 복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독립운동 체험시설과 테마공원도 조성됐다.

이와 함께 숙박형 한옥체험관도 건립해 관광객들이 유럽독립운동의 상징인 남사에담촌에 머무르며 옛 유럽들의 독립에 대한

영원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번 사업이 단순히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남사에담촌 일대를 독립운동 상징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남사에담촌이 가진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역사 탐방로를 구축하는 한편 유럽 독립운동의 이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체험 장소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면우 선생을 대표로 한 한국 유럽 137인회는 3·1운동 당시 전문 2074자에 달하는 장문의 한국독립청원서를 작성,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힘썼다.

산청/ 박종용기자 bjb@jeonmae.co.kr



전남 순천시는 3일 청렴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순천시, 청렴 도시 실현 '청렴실천 다짐대회' 성료

공정·투명한 업무처리 등 다짐

전남 순천시는 3일 청렴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허석 시장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솔선하는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와 함께 간부공무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으로써

터 신뢰받는 공정한 행정 실천을 위한 청렴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금품 등 수수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양심껏 것을 다짐하고 청렴실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식 표명해 실천하고자 결의했다.

허석 시장은 "이번 다짐대회를 시작으로 청렴의식을 확고히 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함께 실천할 것"이라며 "더 청렴한 신뢰도시를 위한 청렴도 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실천 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감시 대상에 선정, 조작에 대한 역력진단과 자체 공직자 청렴마일리지 평가로 체계적인 청렴도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효남취재본부/ 이봉규기자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률 92% 달성

지역 상권 활력 등 효과

전남 광양시는 3차 긴급재난생활비 배부 개시 4일 만에 13만7887명에게 지급을 완료해 지급률 92%를 달성, 설 연휴에 시중에 4130여의 원이 풀리자 위축된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는 모습이라고 3일 밝혔다.

특히 3차 긴급재난생활비 30만 원 중 5만 원이 은누리상품권으로 지급돼 전통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었으며 명품 성수품 구매 등으로 부담이 컸던 일반 가계 역시 긴급재난생활비의 시의적절한 지급이 효과 노릇을 토포해 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4일 만에 지급률 92%를 기록하며 지역경제가 단기간에 활력을 되찾는 것은 '찾아가는 민원창구'의 역할이 컸다.

효남취재본부/ 서경원기자

남녀직원 통합 당직 제도 시행

경남 하동군은 이날부터 남녀직원 통합 당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여직원은 주말 일직 근무, 남직원은 매일 야간 숙직 근무를 전담해 왔다.

군은 그러나 여성 공무원 비율이 현재 40%로 증가해 상대적으로 남성 직원들의 숙직 근무 주기가 빨라지는 등 근무격차가 발생하고 직원들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했다.

군은 지난해 1월 여직원의 숙직 참여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가까이 찬성한다는 결과에 따라 통합 당직 제도 시행 준비를 시작했다. 이후 당직실 리모델링 및 비상벨 설치 등을 통해 당직실 환경을 개선했다.

하동/ 임흥섭기자 imhs@jeonmae.co.kr

함안군 “올해부터 농업인수당 신청하세요”

신청 후 6월 중 농협카드로 지급

경남 함안군은 농업인수당을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도내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공동경영주(배우자)에게 연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인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공동경영주(배우자)이다.

한편 함안군은 농업인수당을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자)이다.

단 농업인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장보험가입자, 농업인 관련 법령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가구당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이달 한 달 간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오는 6월 중 농협체크카드에 충전·지급 받게 된다.

관계 지급대상자는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 1만2000여 명으로 예산은 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안/ 김정호기자 jd2009@jeonmae.co.kr

신안군 계약심사 제도 운영 '잘했다'...14억원 절감

원가산정 적정성 검토 등 주요

전남 신안군이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지난해 14억 원을 절감했다.

군 계약심사 대상 금액은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이며 지난해 총 522건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군은 계약심사를 통해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여건과 설계도서 불일치 사항을 보완해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지역 특성을 감안한 인건비 도시지역 노임할증이 적용되고 예산운반비가 추가로 소요돼 세밀한 원가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3일 "앞으로도 계약의 목적성실규도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해 부실시공 예방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의령 최대 중심도로 '안전한 거리'로 탈바꿈한다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경남 의령군 도심지 가장 중심도로가 전선 지중화로 더욱 안전한 거리로 바뀔 예정이다.

3일 군에 따르면 군청에서 의령교까지의 거리 500m가 한국전력의 2022년도 지중화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진행하는 '2022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오는 3월 한국전력과 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비 총 15억88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10월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의령읍 도심지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군에서 가장 잦은 도로

였다. 이 구간은 폭이 좁은 뿐만 아니라 전봇대까지 설치돼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 이번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전선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게 돼 주민들의 보행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오재관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실시 추진과 함께 전선 지중화 사업까지 확정되면서 의령읍 중심지 활성화에 속도가 붙게 됐다"며 "주민 안전을 중심에 두고 도심 미관까지 가꿀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업무 이행을 위해 계약금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오는 4월에는 실시계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령/ 최광규기자 chpas@jeonmae.co.kr

장흥군, 화재피해 가정 주택 신축공사 돌입

올 상반기 완공 예정

전남 장흥군은 화재로 집을 잃은 저소득 가정의 주택신축을 위해 기초작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착공한 주택신축은 화재 장소 인근을 방촌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다. 새 보급자리를 기다리는 가정은 지난해 9월 화재로 주택이 전소돼 오갈 곳이 없어 마을 유선각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여러문 시정을 접한 군은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전기배설, 온수배설, 이불, 쌀 등을 지원했으며 새 보급자리가 마련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도급률중에

들어갔다.

방촌마을 주민들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행복한가게 주택신축을 위한 사업비를 후원했으며 여기에 장흥지역건축사회 기금지원과 (사)행복한가게 관계자분들의 감사드리며 통합시정관리를 통해 특별한 지원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화재로 상심이 컸을 가정 에 힘을 보태신 방촌마을 주민들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행복한가게 관계자분들의 감사드리며 통합시정관리를 통해 특별한 지원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흥/ 이명호기자 LMH@jeonmae.co.kr

의정부에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지역주민 고용 창출 효과 기대 자족도시 거듭날 성장동력으로

경기 의정부시가 국가주도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경기북부지역과 서울 강북, 강남권 생활물류 유통의 허브 역할이 예상되며 물류에 투입되는 인력은 의정부를 기반으로 청년층을 아울러 모든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물류단지 유치를 통해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영커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물류센터는 자동화 설비로 인해 일반 물류창고와 비교해 많은 인

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그릇된 선입견으로 제품을 검수하고 주문 상품을 포장 및 포장해서 배송하는 것은 자동화 설비가 인력을 대신할 수 없다.

고양시 구광의 경우 채용계획 4500명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인력을 채용해 현재 고용인력이 25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오히려 물류기업은 자동화 설비로 인해 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 1위가 구광이고 4위가 마켓컬리인이라는 사실이 실례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물류센터는 308만㎡에서 1535만㎡로 4배 이상 증가했고 내년에는 2000만㎡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시도 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

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한 사례로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고양시 원흥 구광 풀빌먼트센터(지난 2019년 1월 준공)를 예로 들며 구광에서는 총 3300명의 지역주민 우선 채용 요구를 수렴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커머스 물류단지는 물류단지를 포함한 주거 및 상업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단지 내에는 원도상과 연계한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원·녹지 등을 함께 조성하고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환원할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의거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강진기자 kig@jeonmae.co.kr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개관 4년차 관람객 4만여명 유치

특별전시전·어린이 역사문화교실 등 전개 문화가 있는 날 야간 박물관 프로그램 눈길

충남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이 지난 2018년 개관 이후 지난해까지 총 4만6788명 관람객을 유치하며 금산문화의 대표 관점으로 자리 잡았다.

군은 금산 역사를 계승하고 주민에게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전시전 및 어린이 교실, 문화가 있는 날 등 프로그램을 전개했다고 3일 밝혔다.

박물관에서 선보인 특별전은 2018년 현대도자기 특별전 ‘백’, 2019년 3·1운동 특별전 ‘금산인의 외침, 대한 독립만세’, 인삼전통재배 체험전, 2020년 금산군 옛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아! 옛날이야’, 조선 왕조 태실 전시 ‘100년 만에 돌아온 조선의 시작’, 수달리 제주고씨 선산분묘 출토 복식 특별전 ‘한 땀, 한 땀, 세월을 담은 땀’ 등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지난해 어린이 역사문화교실 ‘생명의 태를 담다’ 및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등이 진행했다.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충남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금산포 제9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해설이 있는 밥이랑 주제로 야간 박물관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은 금산 주변 지역의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기록유물 위임기관으로 국가 소유 유물 179점을 포함해 금산의 역사, 문화, 향토민속 관련 유물 1677점을 소장하고 있다.

하남시/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하남시, 기금운용 효율성 확 올린다...개선계획 수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경기 하남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 ‘2022년 기금운용 개선계획’을 수립해 이행을 들어 갔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0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기

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인구규모와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한 20개 비교 시·군 가운데 상위 수준인 6위를 기록했다.

시는 이번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부진지표별로 목표치를 설정해 분기별 기금담당자와 예산간 협의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저성과·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하거나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박춘오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올해는 일부 부진한 분야를 적극 개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도윤석기자 ngaa21@jeonmae.co.kr



<충청포 제9호>

이재수 춘천시장, 설 연휴 현장근무자 격려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은 최근 시청 통합관리센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설 연휴 현장근무자를 찾아 격려했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청양군, 역사문화 유산 사업 200억 투입

청양향교 유림회관 건립 선비충의문화관 조성도

충남 청양군은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 유산 정비와 관광 자원화를 위해 올해 200억5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가장 먼저 완료되는 사업은 대지면 장곡리 소재 백제문화재 협박물관 전시공간 증축이다.

군은 이 사업에 13억 원을 들여 백제유물전시관 한 시대별 유물전시관과 고려시대화장품 유상옥 회장의 기

증유물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으며 오는 14일 재개관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백제 역사자원을 활용한 체험공간 ‘백제예술체험관(가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0억 원을 투자하는 이 시설은 오는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청양향교 유림회관 건립사업은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다. 청양을 중심으로 전통 유교 문화 활성화를 도모할 유림회관 건립 사업에는 9억5000만 원이며 전통 한옥으로 지어진다.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선비충의문화관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면암

최익현 선생을 모신 목면 송암리 소재 모덕사를 역사문화 체험형 관광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115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시설은 면암 기념관, 체험관, 숙박 시설, 서화 수정원과 면암의 길 등이며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이다.

군은 이 사업과 함께 모덕사 유물 기록화 사업을 추진, 면암 기념관의 전시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군은 전통문화 유산 보존과 전승,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발굴 등에 17억 원을 투자한다.

청양/ 이견영기자 leegy@jeonmae.co.kr

안양시, 총 연장 10km구간 등산로 정비

관악·삼성·수리산 등 대상 로프웨이·보행메트 등 설치

경기 안양시는 ‘숲길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총 연장 10km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비가 이뤄지는 곳은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 등 지역의 대표적 산지이다.

시는 약 3억 원을 들여 3개 산의 등산로 일대에 로프웨이와 보행메트, 데크계단 등을 설치해 안전과 쾌적함을 겸비한 등산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산

림생태계 보호와 숲길 훼손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4월까지 실태조사와 실시설계를 거쳐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6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으로 있다. 시는 이와 더불어 노후한 안내판과 이정표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신규로도 설치할 계획이다. 총 물량은 30점에 달한다.

선명한 색상의 지형에 목표지점 코스와 방향, 거리, 편의시설 위치 등이 상세히 기재돼 등산객들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쳐있는 시민 분들에게 안전하고도 편리하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sj@jeonmae.co.kr

동해시, 기존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전환

개편 사항 적극 홍보 예정

강원 동해시는 농지원부 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 전환작업을 마치고 이후부터는 새로운 농지대장을 발급할 계획이다.

농지의 공적 정부로 기능해 온 농지원부는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되고 이후 시는 관할 10년간 보관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가구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작성대상도 농지원부 등록 기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이에 농업인 주소지에서 신청·발급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전국 어디서나 농지대장 신청·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

강원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 단체협약 체결

강원교육청은 3일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강원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강원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와 제2차 본교섭위원회 회를 열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공무원노조 요구안 제출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본교섭 2차례, 실무교섭 4차례, 실무협의회 4회를 거쳐 총 7장, 본문 40조, 부칙 8개조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로 변경된다.

시는 현재 농지원부에 등록된 2800가구의 농가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제도 개편 사항을 적극 홍보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해/ 이교형기자 lekh@jeonmae.co.kr

주요 협의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정원 확대, 지방공무원 직렬별 노동조건 개선조항 명시, 사무실 환경 등 근무여건 개선, 장기재직유가 대상 확대 등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노사 양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이뤄낸 것에 감사하며 동반자로서 선진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함께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접수

강원 정선군은 ‘2022년 정선군 청년(예비)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장 내부 리모델링, 장비 구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공고일 현재까지 창업 경험(업종무관)이 없는(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1년차 연 1500만 원 창업 지원금 지원 후 창업 성공시 2년차 연 1500만 원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3년차에 청년을 추가 채용해 고용했을 경우 최대 연 2400만 원까지 3년간 최대 5400만 원이 지원된다.

정선/ 최재희기자 jhchi@jeonmae.co.kr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대상 선정

강원 고성군은 토성농협을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3월 군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직매장 및 부대시설 개선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을 지원,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유통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관련 올해 봉포리 산81-4번지 토성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4억8000만 원(보조 60%, 자부담 40%)을 지원, 직매장, 공동작업장 등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매장으로 부대시설을 제외한 순수 농산물 판매 면적을 100㎡ 이상 확보하게 된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성경 속 천국 비밀의 참뜻이 열린다”

신천지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초등 과정 유튜브 대공개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

천국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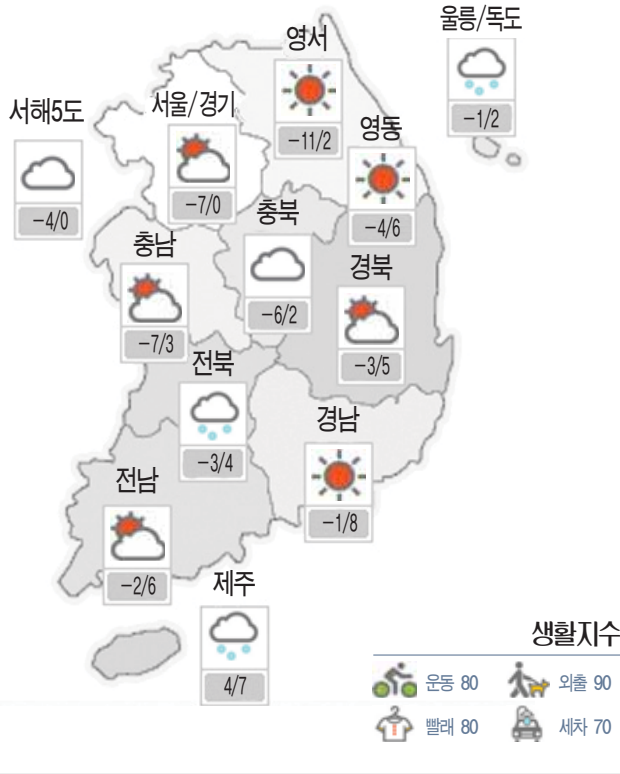
비유와 실상 증거

2022.1.3. ~ 3.28. 매주 월, 목요일 오전 10시

▶ YouTube 신천지 공식 유튜브 전 세계 동시송출
<https://www.youtube.com/user/ShincheonjiChurch>

오늘의 날씨 중부 낮기온 0도 안팎 쌀쌀한 일출

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눈이 날리겠다. 밤부터 전라권은 가끔 눈이, 제주도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다. 낮에는 대부분 5일 아침 사이에는 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중·남부에 가끔 눈이 내리겠다. 이날부터 5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독도 3~10cm, 전라권 1~5cm(전북 서부·전남 북부 7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충남 북부 내륙, 충북 중·남부, 제주도(산지 제외) 1~3cm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도,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파주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8개 기업 선정

경기 파주시는 '2022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28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등의 기반시설 개선사업, 소방시설, 휴게실, 기숙사, 화장 회의를 등 노동환경 개선사업, 바닥, 적재대, LED 조명, 환기·집진장치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눠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최대 7억 원까지 지원되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기업은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최대 8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선정된 기업은 오는 9일까지 시 기업지원과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령시, 도시재생 대학 수강생 모집

충남 보령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주민주도의 상생형 도시재생 체계 확립을 위해 제8기 도시재생 대학 수강생 40명을 오는 23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은 팀별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되며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지역인 관촌지구 주민으로 구성된 '뉴딜팀'과 도시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기초팀', 기존 도시재생 대학 수료자로 구성된 '심화팀' 등 3개 팀으로 운영한다. 교육은 보령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주관으로 내년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9차례에 걸쳐 도시재생 뉴딜의 이해 및 정책 방향, 충남의 도시재생 어디까지 왔나, 주거지원정책 이해 및 관촌마을의 특성과 팀별 맞춤형 수업 등 총 34시간 진행된다. 교육 참여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산시,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지원

충남 서산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3월 시에 따르면 RFID 종량기기는 세대별 카드 인식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배출량이 자동 측정돼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기는 세대별 부하를 통해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높고 전용 수거용기 사용으로 악취 감소 등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 관내 1007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0대를 보급하고, 구입 및 설치비용의 85%를 지원할 예정이다. RFID 종량기기 구입 및 설치비는 최대 170만 원으로 제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시 자원순환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이음 자원순환과장은 "설치 지원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은 물론 청결한 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군, 취약계층·청년층 360명 직접 채용

충남 예산군은 올해 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근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6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360명을 직접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260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60명), 방역일자리사업(11명)을 상·하반기에 걸쳐 추진한다. 또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에 직무경험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청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총 5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예산군일자리 지원센터, 예산고용복지센터 등을 통해 구직상담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일자리를 매칭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미취업 청년의 정규직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국비 9억4127만9000원을 확보했으며 41명의 청년이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인건비 90%를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년 10명중 2명 "오픈채팅 경험했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 위험 노출 여고생 10% "기프티콘 경험"

국내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오픈 채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자 청소년 10명 중 1명가량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기프티콘을 받는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

범죄나 그루밍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했다. 작년 6~8월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378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청소년의 16.3%, 특히 여자 청소년의 21.7%는 익명 계정 등을 보유·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익명계정과 오픈채팅은 익명의 불특정 다수와 만나는 대표적 통로이며, 많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아동·피해자들을 찾아내는 통로기도 하다. 오픈채팅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중은 19.6%에 달했으며 오픈채팅을

해본 청소년 중 75.4%는 낯선 타인으로부터 개인통話を 받아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또 온라인에서 모르는 이에게 이유 없이 선물을 받은 경험은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많았다. 이같은 온라인 그루밍은 호의와 친절을 가정한 접근으로 시작되는데,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 같은 작은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12.4%)과 중학교 1학년(14.3%) 등 10% 안팎의 여자 중·고교생은 낯선 이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런 제안을 받은 청소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를 거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1학년 여자 청소년의 53.3%, 중학교 2학년 여자 청소년의 56.3%는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온라인을 통해 만난 낯선 이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도 많았다. 나이를 알려준 경험 있다는 응답자는 56.2%에 달했다. 이름을 알려준 경우는 37.8%, 사는 지역이나 생년월 일을 알려준 경우는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는 응답자 비중은 17.1%였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전체 청소년 중 10.2%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여자 청소년(11.5%)이 남자 청소년(9%)보다 높았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여자 청소년의 15.4%, 고등학교 2학년 여자 청소년의 16.7%가 이런 오프라인 만남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는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과 시의회 박시선 의장, 서광범 부의장 등에게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소상공인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과 조례제정 등의 공로를 인정해 표창패를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 "여주시·시의회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조례제정... 전국 700만 소상공인 감사 마음 담은 표창패 전달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는 최근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과 시의회 박시선 의장, 서광범 부의장 등에게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소상공인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과 조례제정 등의 공로를 인정해 표창패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추진중인 현장PCR 검사와 경기도 최초 재난 지원금 지급 선언, 방역물품 지원, 경영안정 자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시의회는 작년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및 제정해 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해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제정으로 올 하반기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정식출범시킬 일정으로 현재 시가 추진 중이다. 표창패 전달은 시와 시의회가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을 인정한 소상공인 경기도연합회와 여주시연합회가 중

요에 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는 시의 모범적인 행정과 조례 제정 등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상황에서 각 지자체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원에서 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마음을 담아 오세희 중앙회장이 표창패를 전달했다. 시와 시의회 관계자는 표창패 전달 관련 공평기관으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및 안정이 지역 주민을 위한 우선 정책의 한가기라면서 향후 코로나19의 방역에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을 빠르게 공유해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연합회 운영원 회장은 "예상외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일부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들의 생활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며 소상공인들과 지역 경제를 위해 시나 시의회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향후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과 더욱 적극적 행정을 요청했다. 여주/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용인시, 축사 악취 문제 해결 나선다

경기 용인시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내달 7일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를 이전이나 철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 농가 이전에 대비 10억 원의 보상금을 편성했다. 보상금은 가축 사육 용도의 건축물(축사·관사·돈분장)에 대한 복수의 감점평가를 평균한 값으로 정한다. 감점평가 후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

쳐 철거와 이전을 완료한 축사부터 선착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이전평가를 따른 보상금 신청서, 가축번호배출사실허가(신고) 증명서, 건축물대장,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시청 기획재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악취관리지 내에 있는 축사 악취 민원이 잦은 지역의 축사를 우선 신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축사로 인한 악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악취로 인한 불편 사항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1년도 5개 농가의 축사 이전철거에 50억 원을 지급했다. 용인/유원수기자 youys@jeonmae.co.kr

부천시립도서관, 읽은 책 페이지 수 거리로 환산 '독서마라톤대회' 연다

1쪽 당 2m로 거리 누적 방식

경기 부천시립도서관은 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301일간 읽은 책의 페이지 수를 거리로 환산하는 '제9회 부천시 독서마라톤대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부천시 독서마라톤 대회는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해 도서 1쪽 당 거리 2m로 환산해 거리를 누적하는 방식으로, 참가자들은 마라톤 코스처럼 직접 원하는 독서 코스를 설정 후 독서기록일지를 작성하면 된다. 도서관에서 발인 책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읽은 책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독서마라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플코스(4만2195m), 하프코스(2만1100m), 단축코스(1만), 걷기코스(5000m), 산책코스(3500m) 중 선택 가능하고, 가족은 플코스(4만2195m)로만 참여할 수 있다. 코스별 완주자에게는 완주 인증서와

함께 내린 1년 동안 부천시립도서관 관내내 도서관수를 확대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되고 우수 완주자에게는 부천시 장명의 표창장을 시상한다. 대회 완주 어린이는 완주인증서와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독서마라톤 참여자는 독서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연계해 시립도서관 독후담 공모 대회도 참여할 수 있다. 부천/오세경기자 osk@jeonmae.co.kr

금산군,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 전개

충남 금산군은 관내 주소를 두거나 직장 가진 19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모바일 앱과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독서마라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플코스(4만2195m), 하프코스(2만1100m), 단축코스(1만), 걷기코스(5000m), 산책코스(3500m) 중 선택 가능하고, 가족은 플코스(4만2195m)로만 참여할 수 있다. 코스별 완주자에게는 완주 인증서와

일까지 선착순으로 8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군보건소 건강증진팀에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우선순위로 대상자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 경험이 없는 19세 이상 신규 대상자로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5가지 검진을 통해 건강위험요인이 많은 사람을 우선 선정한다. 단,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 주민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산/황선동기자 m05470@jeonmae.co.kr

수원시, 만65세 도래 어르신·출생아 복지정보 안내

방문상담 필요시 통장 등 동반

경기 수원시가 만 65세 도래 어르신이나 올해 출생아 있는 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보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전하·우편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방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은 찾아가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상담한다. 상담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쌍어전환기인 만 65세 동 맞춤형복지팀·건강복지팀 공직자와 통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2인 1조로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수원/박삼식기자 sspark@jeonmae.co.kr

방문 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활용해 방문 대상자의 기본 정보와 공적급여 등 복지서비스 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계획을 수립한다. 상담 결과는 '행복e음'에 입력해 대상 가구를 지속해서 관리한다. 시의 만 65세 도래 어르신(1957년생)은 2021년 말 기준으로 1만 3131명이다. 지난해 수원시 출생아는 6615명이었다. 시 관계자는 "쌍어전환기인 만 65세 동 맞춤형복지팀·건강복지팀 공직자와 통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2인 1조로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수원/박삼식기자 sspark@jeonmae.co.kr



충남 청양군이 설 연휴기간 대설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많은 눈이 쏟아져 군민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한 밤샘 제설작업에 나서 고마움을 샀다.

청양군, 설 연휴에도 밤샘 제설작업 눈길

제설 차량 18대·제설제 27t 투입

충남 청양군이 설 연휴에도 군민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한 밤샘 제설작업에 나서 고마움을 샀다. 3일 군에 따르면 청양지역에는 설을 하루 앞둔 지난 31일 저녁 9시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설 당일인 1일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많은 눈이 쏟아졌다. 연휴 기간 청양지역 평균 적설량은 6.2cm였으며 청양읍과 대지면, 남양면, 화성면 지역은 최고 9.5cm에 이를 정도로 짧은 시간 폭설이 몰아쳤다. 이에 군은 삼목길과 귀경·귀성길 안전을 위한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가 1일 새벽 1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주

요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완료했다. 군은 인력 30여 명, 제설 차량 18대, 제설제 27t을 투입해 주요 도로와 청양읍 사거리를 시가, 각 면 소재지에 쌓인 눈을 말끔하게 치웠다. 특히 이번 제설작업에는 김동근 군수까지 직접 나서 10개 읍면 도로와 마을안길의 제설 상황을 점검하면서 시설하루 등 폭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김 군수는 "신속한 제설작업은 오래전부터 군적 행정을 대표하는 사례"라면서 "밤이 올 때까지 군민들께 서도 눈길 사고 예방을 위한 짐 앞, 짐 뒤 앞 눈 치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경기 김포시는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김포시, 대형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민간 전문가 합동 점검반 편성

경기 김포시는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와 건축·건축사공·건설안전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겨울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콘크리트 타설 보양 및 화재 안전관리, 자반점화 및 토사 붕괴, 건설기계 장비 및 가설구조물 설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포/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

또한 연면적 1만㎡ 미만 중·소형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상주관리자로 하여금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와 함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임시 안전조치 후 신속히 시정토록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근수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해 안전사고가 없는 안전한 김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

사건·사고

인천서 뽕소니 차량에 70대 숨져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그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권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던 A씨의 차량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이날 오전 A씨를 경찰서로 입외동행했다. 인천/명창기자 mchs@jeonmae.co.kr

공간디자인어 임성빈씨 음주운전 혐의 입건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해진 공간디자인어 임성빈씨(30)가 만취 운전하다 적발됐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임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에 승용차 측면을 들이박히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임씨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임씨에게서 면허 정자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임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 구가 조처한 상태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황성서 천연기념물 제217호 신앙 구조

경원 황성서사당 구조대가 3일 새벽 황성군 청일면의 기암절벽 자락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217호 신앙을 구조했다.

이날 출동한 생활안전구조대, 청일펌프, 청일구급대는 새벽 4시 43분경 자락에 매달려있던 신앙을 구조했다. 신앙은 이날 출동했으나 현장 도착해 확인한 결과 멸종위기 1급인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된 신앙을 발견하고 신속히 구조 활동을 전개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야생동물은 발견했을 시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을 가하거나 무리하게 잡으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달라"며 "구조된 신앙이 건강하게 회복돼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성/안종필기자 yahn@jeonmae.co.kr

"연락 안된다" 중국인 여성이 남친 흉기로 찔러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 여성 A씨(29)를 찔러 다치게 한 흉기를 휘둘러 남친친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께 제주시 연동의 주거지에서 남친친구인 중국인 B씨(30)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연력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찔러 다치게 하려 병원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제주주재본부/양동익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탄력 '친환경 국제공항' 변신 주목

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상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생활밀착형 지원사업도 추진

경기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부지의 선정 및 이전주변 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비하고자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주변지역 지원사업(가칭)'을 구상하고 친환경 통합국제공항 유지를 통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이 탄력받고 있는 분위기에 힘입어 새 국면을 맞출지 기대된다.

시는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오염물질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통합국제공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변지역은 친환경 통합국제공항 배후지역을 품은 미래형 생태 도시로 조성해 습지 생태 보존은 물론 경제와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사업 구상은 이전주변지역 지원의 기반확충을 설정하고 주민숙원사업 파악 및 요구 사항 수렴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는 게

목적이다. 시는 또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자료 근거를 마련해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인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에비'란 표지표를 떼기 위해 적극 대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남부에 친환경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공항과 연계한 전철, 도로 등 기반시설은 물론 산업·배후단지도 조성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국제공항은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동네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 분주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호흡기전염질병리내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방뉴스

상가층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 막은 주민들...대법 "정당"



판결

아파트 단지에 달린 상가 건물이 전체 대지 사용권의 일부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입주주민을 지하주차장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A 아파트 상가의 상인 29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강제확 인정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가 층에 지하주차장 사용권이 없다고 관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상인들 "대지권만큼 주차장 달라" 법원 "분양면적 지하주차장 빼져"

1심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A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임의 명백한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판단하면서 상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의 구조와 분양 조건 등을 따진 결과다. 문제가 된 지하주차장은 아

파트 10개 동과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상가로는 출입구는 따로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계획에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분양 면적에는 포함했지만 상가 분양 면적에는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건축물 대장을 보더라도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공용 부분으로 명시돼있지, 상가 대장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원소심에서 상인들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놓고 볼 때 상가동의 대지권 비율이 1.67%나 1000대 규모의 지상·지하주차장에

서 적어도 2%대분은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의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역시 "지하주차장은 대지 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 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연합뉴스/정성조기자

설 연휴 경기 남부지역 교통 사망사고 0건

112신고 5270건 8.4% 감소

경기 남부지역에서 올해 설 연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와 중요 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대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5270건으로, 5754건이 접수됐던 전년 설 연휴 기간에 비해 8.4%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일평균 40.8건으로 지난해 62.2건에 비해 34.4% 줄었고 폭설로 인해 교통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하루 평균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지난해 109명에서 58.6

명으로 46.2% 줄었다.

지난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도 3명 발생했으나 올해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반면 강·절도,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해 355건에서 소폭(0.7%) 상승한 357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남부청은 이번 명절 기간 경찰과 협력단체 등 4만4000여명을 동원해 금융기관·공원·편의점 등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만6000여건의 예방 진단과 3000여건의 안전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4400여곳과 학대 우려 아동 500여명을 전수 모니터링에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강화했다. 이재휴기자 goodnews@jeonmae.co.kr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법원공탁금 311억 압류

체납자 1685명 적발...10억 징수

경기도는 작년 9~12월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만여명의 법원 공탁금을 조사해 1685명이 보유한 311억원의 공탁금을 압류한 뒤 이 중 10억원을 체납세로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조사는 수천만원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양시 A법인은 지난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무단 증축·개축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2800만원을 2년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3000만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추심됐다.

또 관공시에 거주하는 B씨는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산정되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 800만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공탁금 800만원이 적발돼 강제추심으로 전액이 징수됐다. 인천시에 사는 C씨는 세 차례 무신고·무허가 건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3140만원을 체납해 부동산까지 압류됐는데 이번에는 법원 공탁금 2968만원이 적발됐다. 공탁금을 압류해 추심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111명이 3억6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한편 도는 소송 등으로 당장 강제추심이 어려운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경찰 35명 작년 하반기 성비위로 징계

전년 동기 대비 6명 줄어 파면·해임 등 중징계 31명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지난해 하반기 35명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3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41명) 6명 줄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 등이 포함된 중징계는 31명, 경징계는 4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중에서는 사무실 등에서 신체접촉한 경우가 총 4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직장 화장

실내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은 과반했다. 성희롱 반복 사례로는 동료직원에게 사적 만남 요구, 머리를 쓰다듬는 등 신체적인 성희롱, 동료 직원의 이성 교제에 관한 반복적으로 질문, 사무실 내 발언이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성희롱, 동료직원에게 성관계 등에 관한 발언 등이 있었고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동료들 성적 대상화 하고 술에 취해 집단 동료직원의 신체에 접촉하는 등 성희롱한 사례도 징계 처리됐다.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를 비난하는 발언으로 2차 피해를 한 직원도 엄중처벌 대상 기준에 따라 중징계됐다. 또 직장 외 성범죄 사례도 다양했다. 성폭력 사례로는 음주 후 귀가 중 일면식 없는 여

성의 신체에 접촉, 음주 상태에서 지인을 팔이안아 강제추행, 인터넷 방송 출연자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문자 전송, 쇼룸 화장실 내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음주 후 지인 성폭행, 연인과의 성관계 행위를 연인 몰래 촬영, 공중화장실 옆 공개 장소에서 음란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 기저를 상대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직원, 상습 성매매를 한 직원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비밀을 유지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서영익기자 seo@jeonmae.co.kr

정원아, 오늘도 부탁해! 정원이를 만나면 하루가 맛있어지니까. 오늘을 더 맛있게 청정원. A young man in a light blue hoodie is smiling and eating a bowl of food with chopsticks. The background shows a kitchen setting with various ingredients and containers.

동정

비우체택시 운행협약 체결식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4일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비우체택시 사업자 운행협약 체결식에 참석.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준공식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은 4일 오후 2시 강릉 연곡에서 개최되는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준공식에 참석.

인사운영 협약식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는 4일 오전 10시 군청에서 열리는 금산군-금산군의회 인사운영 협약식에 참석.

정산농협 정기총회
김돈근 충남 청양군수는 4일 오전 10시 정산농협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2년 정산농협 정기총회에 참석.

서천문화원장 취임식
노복래 충남 서천군수는 4일 오후 2시 서천문화원에서 제18대 서천문화원장 취임식에 참석.

행정역량 강화교육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는 4일 오후 3시 30분 추수실에서 열리는 2022년 2월 월례모임 및 행정역량 강화교육에 참석.

임계농협 정기총회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는 4일 오전 10시 임계농협 회의실에서 열리는 2022년 임계농협 정기총회에 참석.

임계농협 정기총회
전홍표 강원 정선군의회 의장은 4일 오전 10시 임계농협 회의실에서 열리는 2022년 임계농협 정기총회에 참석.

추민규 경기도의원, 남한중학교 감사장 받아
추민규 경기도의원(허민주·허남)은 최근 남한중학교 감사장(사진)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추민규 경기도의원, 남한중학교 감사장 받아
특히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에는 도교육청 집행부와 전연잔디 교체가 아닌 인조잔디 교체로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호도시 8 오부시 홈페이지 개설
충남 홍성군과 일본 오부시는 최근 비대면 국제 교류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상호도시 소개하는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우호도시 8 오부시 홈페이지 개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싱크탱크'로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전문성·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4명 중 2명을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했다.

우호도시 8 오부시 홈페이지 개설
충남 홍성군과 일본 오부시는 최근 비대면 국제 교류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상호도시 소개하는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우호도시 8 오부시 홈페이지 개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싱크탱크'로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전문성·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4명 중 2명을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했다.

오늘자 인사 및 부고는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 자재대금 530억 조기 집행

“지역과 상생 노력 지속할 것”

지역사회복지시설 31곳에 생필품·상품권도 전달

전남 서남권 최대 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설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온정을 내렸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설 명절 지역 협력회사의 자금 지원을 위해 자재 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사회복지시설 31곳에 2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상품권을 전달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김형관 대표도 최근 목포 신정동 소재 명도복지관을 찾아 제라딘 라이인 관장과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생필품과 상품권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김형관 대표가 최근 설을 맞아 목포 명도복지관을 방문해 생필품과 상품권을 전달했다.

호흡곤란 24개월 아기 응급실 후송 생명 구해

청양 칠갑지구대 박상근·염지성 경장, 신속대응 화제

충남 청양경찰서 칠갑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빠른 판단과 조치로 24개월 남자 아기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 설 연휴에 훈훈함을 선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근·염지성 경장. <청양경찰서 제공>

3일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경 칠갑지구대로 한 남성이 뛰쳐 들어와 도움을 요청했다. 이 남성은 생후 24개월 된 남자 아기의 아버지로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아기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까이 있던 칠갑지구대로 급하게 뛰쳐 들어온 것이다.

당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칠갑지구대 경장 박상근과 경장 염지성은 현장에 나가 구강에 포말이 형성되고 호흡이 거의 없는 아기 상태를 확인한 후 119구조대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던 관계로 청양의료원까지 1분 만에 순찰차를 이용해 후송, 응급조치를 통해 아기의 생명을 구했다.

보령시 '1월 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 5명 선정



충남 보령시는 시장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직원 5명을 '1월 중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표창했다고 3일 밝혔다.

해양정책과 박근희 주무관은 울도 옹벽 보강공사 등 특수상황 지역의 개발사업에 추진하고 도서 지역 파손 호안에 대한 긴급복구, 삼시도 해안가 파라넷 설치 등 도서 지역 소규모시설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다.

박람회 지원단 오미경 팀장은 2021 충남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억2300만 원을 확보해 해양주제관 콘텐츠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박람회 입장권 발매에 기여했다.

주도면 김미남 주무관은 면내 코로나19

조대형 순천대 교수,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에 위촉

순천대학교는 사회과학대학 경제학전공 조대형(사진) 교수가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고 3일 밝혔다.

1986년 처음 발족된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는 학계·법조계 등 대표적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금융부문의 최고 정책자문기관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싱크탱크'로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전문성·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4명 중 2명을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했다.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

사회적 소외감 해소 통한 사회통합 기여

경기 파주시는 장애인체육회가 1월 1일부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을 창단하고 최근 파주스타디움 대회의실에서 창단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경기 파주시는 장애인체육회가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을 창단하고 최근 파주스타디움 대회의실에서 창단식을 가졌다.

육상팀 선수단은 홍성인 코치, 이상의 선수로 구성됐으며 이상의 선수는 제4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한국신기록 및 대회신기록을 세우고 2021 비레인 장애인사이버청소년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시는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을 통해 관내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를 널리 알리는 장애인 체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1월 우수직원에 이고은 주무관

탄소중립 사회조성 기여 공로 인정

충남도는 1월 이달의 우수직원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이고은(사진)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편 도는 매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추천받아 공적 심사 후 최종 선발하고 있으며 이달의 우수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인증패와 팀 격려금 등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강원랜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최고등급'

강원랜드는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기관 최초로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점검하고 실내점점을 내부경영평가에 반영해 개인정보보호 수준향상에 힘썼으며 관련 산업사원부터 취급자, 관리자, 책임자까지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강원랜드는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에서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보호조치만 마련,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등 13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한 0.92점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이래 최초 양호등급을 받았다.

이삼걸(사진) 대표이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며 "디지털 전환 원년의 해에 발맞춰 고객에 대한 정보 보호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고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강원랜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산군, 희망2022 나눔 캠페인 모금액 7억5100만원 달성

충남 금산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1일까지 진행한 희망2022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목표액인 4억 원을 초과해 군 최고 액수인 7억5100만 원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 금산군은 희망2022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목표액인 4억 원을 초과해 군 최고 액수인 7억5100만 원을 달성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금 기부 5억4500만 원, 현물기부 2억600만 원이 모였다. 전체 기부액의 45%를 차지하는 기업기부에는 동진제약 1억4000만 원, 산림조합 1억 원, 유성화연테크 3000만 원, 삼남제약 2500만 원, ㈜연오엔 3000만 원 등이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을 보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노래주신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 양양군에 이웃돕기성금 20,000,000원



양양군, 2022년 직지사 특별화비 전달



하남시,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방문접종



김포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제2기 추가단원 위촉



의정부시 송산1동마을복지계획추진단, 이웃사랑실천



순창군, 지역주민 대상 사랑의 헌혈 진행



함안군자원봉사센터 '함께해요, 나눔키친 친한친' 전개



당진 송악읍 이장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토끼와 거북이’에서

데스크칼럼

최재혁

지방부국장



격자를 벌리며 멀찌감치 앞서 나갔다. ‘선택 2022’를 향해 뛰는 ‘0선 후보들’의 초반 레이스는 이처럼 대조적이다. 대선에서 ‘달’은 아주 긴 시간이다. 윤 후보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이르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폭탄’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옛날 옛적 ‘토끼와 거북이’는 앞서가던 토끼가 낮잠을 자는 바람에 거북이한테 지고 말았다. 기세 좋게 치고 나갔던 윤 후보와 그를 추격하고 있는 이 후보 상황이 마치 현대판 ‘토끼와 거북이’를 보는 것 같다. 유명한 우화 ‘토끼와 거북이’에서 발 빠른 토끼는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를 앞잡아 보고 달리기 시합을 한다. 하지만 토끼가 달리기 시합 중간에 너무 밑에서 잠을 자면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간 거북이에게 지게 된다.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아무리 쉬운 상대라 할지라도 상대를 앞보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것이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리니언은 달리기에서 빠르다고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싸움에서 약한 쪽이 항상 지는 것도 아니며, 결국 최후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는 ‘리니언 법칙’을 주장했다. 그는 이 법칙에서 ‘경쟁’을 장거리 달리기와 비유했다. 일시적인 우위가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는 건 아니고 의외의 상황에서 역전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성공하면 자만에 빠져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고 심지어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등 안하무인으로 변하곤 한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한다. 자신의 지금 상황이 남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의기양양해 상대를 앞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비보 같은 것이다. 인생은 멀고도 긴 여정에서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복이 영원히 한 것이 아니며, 낙오했다고 해서 영원히 낙오자로 남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철학자 랠프 왈도 에머슨은 자신의 시 ‘무엇이 성공인가’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인데 이 땅에 존재했던 것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이

라도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선거를 34여 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쏟아내며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후보들은 각종 여론 조사에서 앞서거나 뒤처거나 하며 일취일비하고 있다. 하지만 고민하시라! 진정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밤심은 금물이다. 윤 후보나 이 후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다. 지지율이 앞선다고 여유를 부렸다가 거북이한테 역전당한 토끼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 실책에 패자를 부르고 있을 때도, 지지율에 도취해 오만할 때도 아니다. 두 후보를 향한 비호감이 지지율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말이다. 네거티브 할 때도 아니다. 그 시간에 코로나19에 ‘오미크론’까지 덮친 이 나라와 국민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건지 대안을 궁리하시라. 민심은 흉흉한데, 갈 길은 멀다. 2022년의 대선은 낯설다. 이번 대선 판은 아무리 쳐다봐도 험하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공’과 ‘여가부 폐지’, 일부 이대남들의 극우적 성향, 탈도 공약 등. 논란 하나하나가 이유-원인이 없이 솟아난 이슈는 아닐 것이다. 그간 한국사회의 성격과 세대변화, 자본의 발달, 팬데믹 영향 등의 요소가 뒤섞여 그 결과로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

우리 사회에 분열과 증오가 존재하지만 그 분열과 증오를 해결할 수 있는, 연대를 회복하는 공론의 장도 필요하다. 대선이 그 역할에 충실하기를 희망한다. 갈라치기는 부메랑이 되어 꼭 되돌아오게 돼있다. 우리 대선 역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후보자 특성 이론’이 지배해 왔다. 후보 가족까지 포함시켜 후보 개인적 요인을 잣대로 삼아 투표한 사가 압도적이었던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두 후보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비가터비 공격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다. 이미 국민은 ‘이번 대선 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묻는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정책·비전의 승부를 펼쳐야 한다는 말이다. 대선 후보가 되려 국민의 짐이 돼선 안 되지 않겠는가.

20대 대선 이 석 달여 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양당정치’ 구도를 등에 업고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형국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직후 한 달여 동안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경선 후유증으로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했고, 대장동 의혹은 여전히 ‘아킬레스건’이다. 윤석열 후보는 실언과 구설에도 이 후보와 지지율

Opinion

전국매일신문은 독자여러분의 투고, 사진, 민평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 (우 133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능빌딩) 전화 1988-5762 / 팩스 031-758-4380 / 홈페이지 www.jeonmae.co.kr

외부 필진의 기고, 기고, 독자들에게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예방 합시다

기고

이창학

강원철원소방서장



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절반을 차지한다.

이는 소방차가 진입이 힘든 좁은 골목과 불법 주차된 차들,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미비로 인한 초기진압의 어려움, 특히 주거 밀집지역의 같은 경우 인근 주택으로 화재확산 등 위험이 높아 주택화재 사망자는 쉽게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초기 화재 진압 및 대피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방시설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있다. 소방당국에서는 2016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층별로 1개이상 비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의무로 설치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하는 역할은 간단하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음을 울림으로 사람

들이 대피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며,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큰불로 번지기 전에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기구이다. 외국의 사례로 보더라도 미국(32년간 56%), 영국(22년간 54%), 일본(6년간 12.4%)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법제화 한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구입하는 방법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인근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소화기는 세대별로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철원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있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면 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2~2020년 전체 화재 대비 주택화재는 18%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6%

암 가족력이 있으면 나도 암에 걸리는 걸까

의학칼럼

서희선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에 걸린 경우는 33~127명 많았다. 부모보다 형제자매 간의 가족력이 강한 것은 같은 세대인 형제자매가 암을 유발하는 환경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수치를 한국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국내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암은 작게 가족 3명에서 1명만 발생해도 가족력으로 보고 정기검진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암 가족력에 대처하는 방법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암’. 암 가족력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위암은 가족력만 있는 사람의 암 발생 위험은 2배지만 가족력과 함께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사람은 5.3배,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은 4.9배 발생 위험이 크다. 대장암은 부모가 대장암 환자일 경우 본인도 암 발생 위험 3~4배 증가하며 형제자매 중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많게는 7배까지 위험이 증가한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 대장암 환자가 많을수록, 발생 시기가 45세 이하로 일찍 발생할수록 유전적 요인이 강하므로 40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규칙적으로 받으면 가족력에 의한 대장암 사망 위험이 70%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가족 중 유방암 환자가 2명 이상이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 이 경우 약 20%에서 유전자(BRCA1·2) 돌연변이가 있고 캐나다 연구 결과 BRCA1·2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의 유방암 발생률이 50~85%였다. 미국에서는 유방암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면 유방암 치료제인 타목세펜을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거나 유방을 미리 절제한다. 모두 유수도 가족력 발생 억제에 도움이 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의과 대학이 간담사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은 여성이 출산한 뒤 모두 수유를 하면 나중에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소암은 유방암과 가족력이 상호 연관돼 있는데 BRCA1·2 유전자 돌연변이가 두 암 발생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면 남소암 위험이 2배가량 높아졌다. 어머니 자매 중 유방암 환자가 있으면 남소암 발생 위험이 40%나 높았다. 마찬가지로 남소암 가족력도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남소암은 임신·출산 경험이 많거나 모유 수유를 오래 하는 등 무배관 기간이 길수록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

폐암은 가족력이 있으면 발생 위험이 2~3배 높다. 가족력이 있는 10년 이상 장기 흡연자는 40세 이전부터 저선량 흉부 CT(전산화단층촬영)를 매년 한 번씩 꼭 해야 한다. 일반적인 흉부 X-레이로는 초기 폐암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45~8배 높으므로 가족력이 있으면 보통 50세부터 PSA(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40세부터 받는 것이 좋다. 담낭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 담석이 생기면 예방적으로 담낭을 절제하기도 하는데 담낭 절제술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담낭암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력은 ‘나도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가족력은 건강검진과 더불어 특정한 질병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암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함께 표표표처럼 언급되는 ‘가족력’은 무엇이고, 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암은 가족 중 1명만 있어도 가족력

수년 전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술을 받아 관심을 모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남소암을 앓다 숨진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유방암과 남소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예방’ 목적으로 유방 절제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 유전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흔히 암의 유전성을 이야기할 때 ‘가족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때도 가족력이 무엇인지 문진을 하곤 한다. 이때 유전학과 가족력의 정의가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유전력은 특정 유전자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 암이 대물림되는 경우로 인텔리나 졸리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가족력은 이러한 유전적 요인에 생활 습관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까지 통틀어 정의한다. 의학적으로는 ‘3대에 걸친 직계 가족 혹은 사촌 이내에서 같은 질환을 앓은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사촌의 암 발생 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아서 흔히 3대 직계 가족 위주로 암 발생 여부를 물어 가족력을 파악한다.

암 가족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2004년에 발표된 스웨덴과 독일 암연구센터의 공동 연구이다. 스웨덴인 1000만명을 대상으로 직계 가족력과 암 발생 위험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 암에 걸린 경우 자신의 암 발생 위험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에서 1.8~2.9배, 형제자매가 암에 걸린 경우는 2.0~3.1배, 부모와 형제자매가 모두 동일한 암

전국매일신문 jeonmae.co.kr

대표전화 1588-5762
정치부 031-755-5600
경제부 02-749-0923
사회부 031-755-3484

지방부 031-755-5622
광고문의 070-4325-3858
FAX 031-758-4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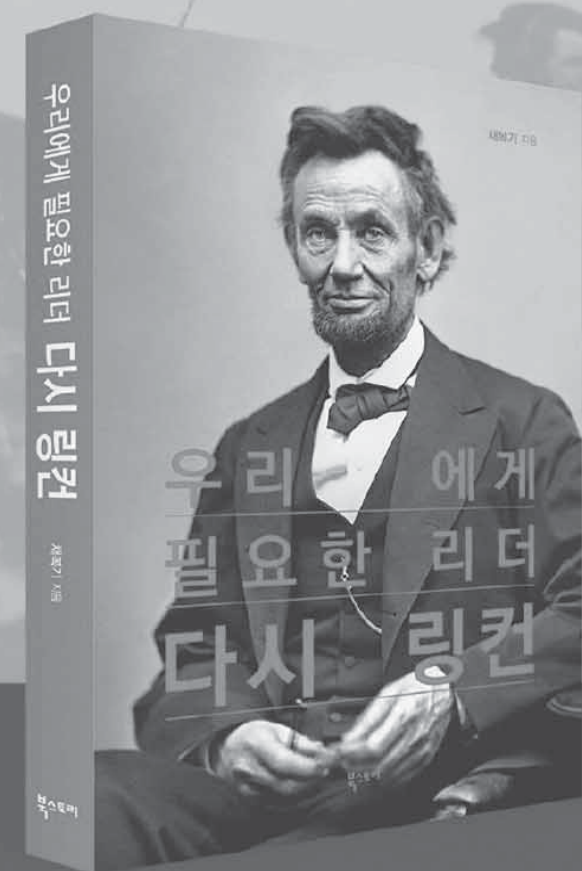
1997년 6월 24일 창간등록번호 가-438(일간지)
본사등록번호: 중구 요원동 101-1 조신문화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능빌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경명동, 덕신빌딩)

서울본부	02-749-0922	강원본부	033-251-4866
인천본부	032-751-1478	충청본부	041-668-3722
경기북부본부	031-967-1616	충남본부	043-255-8877
대구본부	053-471-1111	호남본부	061-742-8181
경남본부	055-761-7832	제주본부	064-723-1950
세종본부	044-665-6000		

새로운 대한민국의 5년, 누구에게 말겨야 할까 대통령들의 대통령, 링컨에게서 배우는 리더의 품격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

다시 링컨

채북기 지음 | 15,800원

정치, 젠더, 세대 갈등으로 분열된 지금
우리에게는 링컨 리더십이 필요하다!

Tel : 02.332.5281 | Fax : 02.332.5283
E-mail : bookstory@naver.com

북스토리



전국매일신문배

코리아오픈 하프파이프대회

2022. 02. 17 / 목요일

휘닉스평창 하프파이프

대회종목 | 하프파이프 스키 & 스노보드

참가대상 | 초등학생 이상 모든 스키어 및 보더

시상부문 | 초등부(남/여 1~2학년부, 3~4학년부, 5~6학년부), 중고등부(남/여), 대학일반부(남/여)